



# 사이;공간

[[magazine]]

# 사이공간 지도

Uijeongbu  
SAIGONGGAN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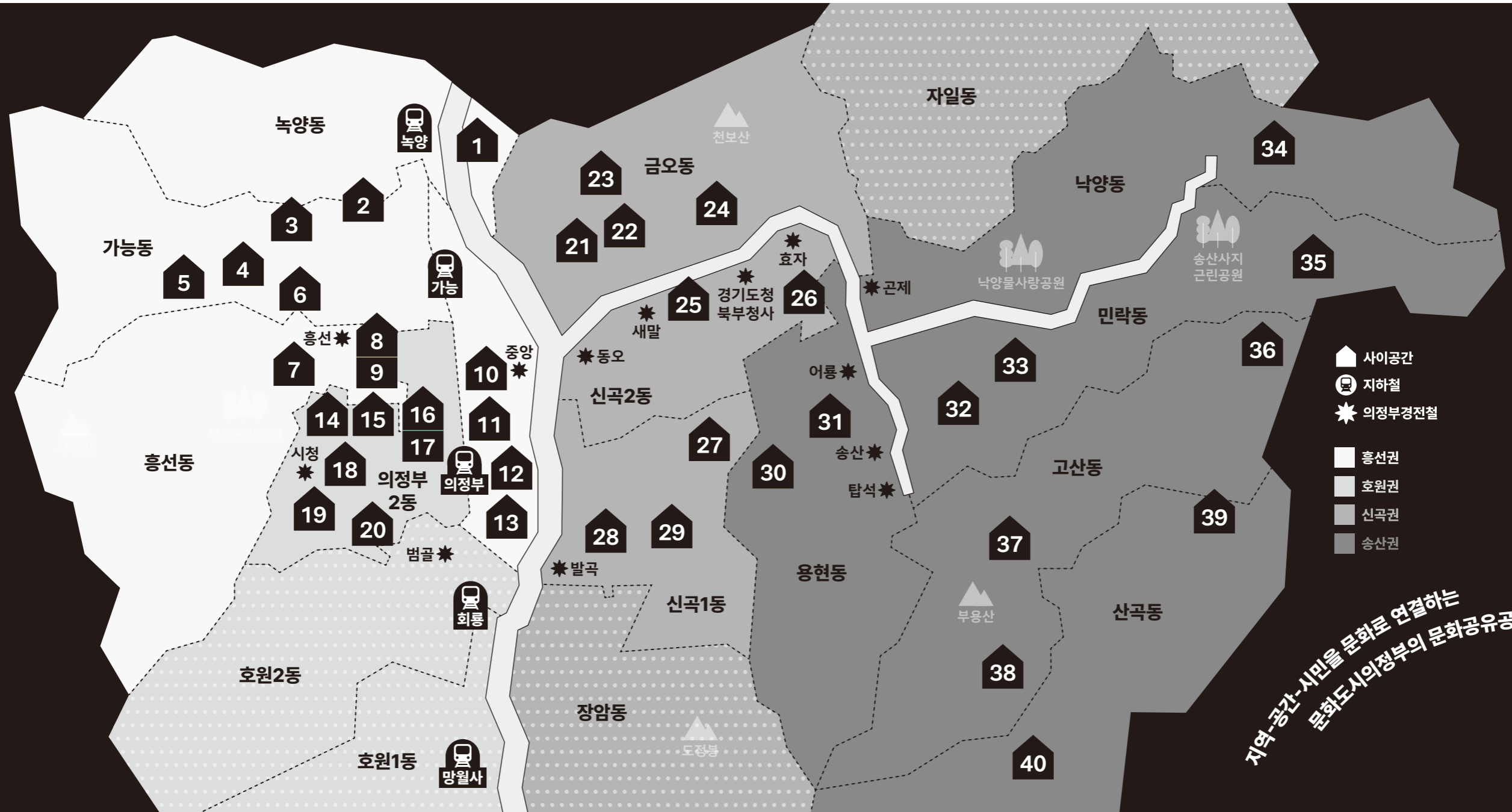
- 1 너나들이 음악실
- 2 조커피
- 3 안부, cafe
- 4 그림정원화실
- 5 동네공감
- 6 우리가치부엌
- 7 비브르 사 비
- 8 공간 기분전환!!!

- 9 ADK SPACE
- 10 동아그림
- 11 이그녹스
- 12 기록의 조각
- 13 영희책방
- 14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 15 예술공간 휴서사
- 16 하골공방

- 17 살판마을극장
- 18 플로팅커피
- 19 윤갤러리
- 20 빛뜨레커피
- 21 대안공간 환호성
- 22 아트볼프로젝트
- 23 카페 꽃동네
- 24 요호스튜디오

- 25 꿈나무교육센터
- 26 바오공방카페
- 27 라온공방
- 28 퀸즈뮤직
- 29 빛날화
- 30 열매작은도서관
- 31 산야요가스튜디오
- 32 아띠 패브릭아트 스튜디오

- 33 힐링워커스
- 34 반딧불이작은도서관
- 35 우리소극장
- 36 LH더휴(休)작은도서관
- 37 시소그림책방
- 38 정이든다작은도서관
- 39 봄별작은도서관
- 40 한식카페 담다헌



지역-공간-시민을 문화로 연결하는  
문화도시의정부의 문화공유공간



사이공간은 문화도시 의정부의 대표 문화공유 공간으로서, 지역-공간-시민을 문화로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합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내 다양한 민간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고, 의정부 시민들이 사이공간을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느끼고 펼칠 수 있도록 [공간드림], [어울림] 두 가지 유형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 ■ 어울림

공간 주체의 시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동네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관계망 형성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 공간드림

시민 주체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대관을 지원합니다. 2025년도 사이공간을 활용한 시민 주체 3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강의, 공연 등의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 차례

010	너나들이 음악실
016	조커피
022	안부,cafe
028	동네공감
034	우리가치부엌
040	비브르 사 비
046	공간 기분전환!!!
052	ADK SPACE
058	동아그림
064	이그독스
070	기록의 조각
076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082	플로팅커피
088	대안공간 환호성
094	아트볼프로젝트
100	카페 꽃동네
106	바오공방카페
112	라운공방
118	퀸즈뮤직
124	빛날화
130	아띠 패브릭아트 스튜디오
136	힐링워커스
142	우리소극장
148	시소그림책방
154	정이든다 작은도서관

사이공간 공간지기와 로컬피스가 1: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인장 인터뷰는 공간을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공간지기의 고유한 시선과 어휘로 공간을 해설합니다. 공간지기의 일상을 묻는 질문부터, 공간-지역-사람 사이에 얽힌 내밀한 이야기를 묻는 질문까지 던집니다.

신기하게도 공간과 공간지기는 고스란히 동기화됩니다. 처음 공간을 접한 것과 다르게 공간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공간을 다시 보면 공간지기의 생각, 욕구, 목표, 가치관 등이 곳곳에 염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이공간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고, 어떤 사이공간은 때때마다 모습과 쓰임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곤 합니다. 게다가 한 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것과 여전한 것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읽는 사람들이 25곳의 공간과 악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와 닮은 구석이 있는 사이공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너나들이 음악실

엄현희

신의철



사라져가는 이웃 간의 정을,  
음악과 함께 나누는  
너나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기운 빠지는 일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 풀기에도 제격이고 마음 기댈 등지가 되어줍니다. 너나들이 음악실은 취미로 즐기는 통기타, 색소폰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 음악실입니다. 공간에 들어서면, 저마다 악기 연습에 열중하는 모습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쉬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두 공간지기는 동호회 결성부터 회원 모집 및 관리, 공간 운영, 악기 연주 지도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음악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음악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공간지기에게서 음악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끊이지 않는 너나들이 음악실에서, 연주 소리를 배경음 삼아 신의철, 엄현희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의철 함께 기타를 치는 프로그램이에요. 초보자들은 개인 지도를 해주고, 연습 후엔 모여서 합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우고 개인 연습을 많이 하시죠. 집에 기타가 없어서 연습이 어려우면 여기 와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연습하러 편하게 오세요.



‘너나들이 음악실’을 어떻게 열게 되셨어요?

의철 전 예전부터 기타를 쳤는데,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 보니 안 치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기타 치는 사람을 만나 밴드를 결성해서 다시 기타를 치게 됐죠. 연습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시청 앞에 50평 정도의 지하연습실을 임대했죠. 밴드 멤버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기에는 그 공간이 아까워서 동호회 회원을 모집했는데, 그때는 그런 동호회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인원이 금방 모여 스무 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기타 레슨을 시작해서 이제 오 년 정도 됐죠.

하다 보니 지하는 음악실로 쓰기엔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습기가 많이 차서 악기에도 좋지 않고,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러던 참에 지금 이 공간에서 색소폰 학원을 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기타 동호회 운영을 해보라고 제안했어요. 기타 회원도 있고 색소폰 회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여긴 임대료가 비싸긴 하지만 2층이고, 옥상도 있고 환경도 좋아요. 여기로 이사 온 지는 1년 좀 넘었어요. 그런 스토리로 여기까지 왔죠.

시청 앞에 오래 계시다 최근에 이사 오신 거네요. 동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의철 맞아요. 여기 이사 올 때 모든 회원이 같이 옮겨왔는데, 그때의 회원은 거의 다 나갔어요. 전 공간에선 기타만 했는데, 여기는 색소폰을 주로 하던 곳이니까 악기 소리가 섞이는 게 싫었나 봐요. 나만의 기타 연습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기타를 치는 의철, 임현희, 임현희, 임현희

현희 전엔 기타 회원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색소폰 회원이 좀 더 많아요.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죠. 색소폰은 거의 안정된 상태에 있고요. 이제는 기타를 더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사이공간>에 참여해 보면 좋은 홍보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희님은 기타 동호회 회원이었다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현희 어떤 취미 활동을 할지 고민했어요. 제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니, 기타를 배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배워보자.’ 싶어 동호회에 들어왔죠. 몇 년 하다보니 재미도 있고, 내가 도와서 동호회와 공간을 활성화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니깐 잘 되면 좋잖아.(웃음) 그렇게 운영진으로 합류해서 이것저것 해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취미로 시작하셨지만, 의기투합도 하고, 외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현희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버스킹도 좀 하고, 봉사활동도 해보자고 했어요. 요양원에 봉사 공연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CRC 열린음악회 의정부 시민대축제’에 나가기도 했어요. 대외활동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음악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또 악기를 연주하기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현희 저희가 음악실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도 좋고요. 음악실이 거의 다 지하에 있지 저희처럼 2층에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옥상도 있던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현희 휴식 공간으로 주로 쓰이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해요. 거기에도 조그맣게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종종 연주도 하죠. 기타 연주했다가 색소폰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옆에 작게 골프 치는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로는 와따라고 생각해요.(웃음)



너나들이 음악실 옥상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회원분끼리도 엄청 친하시겠어요.

**현희** 그럼요. 끈끈한 유대감이 있죠. 또, 의철 님이 중재를 잘하셔요. **의철** 회원 다같이 잘 어우러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 불만인 사람도 있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서로서로 잘 지내고 있죠.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오래 다녔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레슨을 해주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떤 회원은 매일 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하며 일손을 보태줘요. **현희** 동호회다 보니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서로 배움을 얻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어주죠.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철** 즐겁게 음악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이곳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오세요. 젊어서 해보고 싶었던 걸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와서 배운단 말이예요.

그런 취미생활을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보람 있죠.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같이 음악으로 어울릴 수 있으니 즐겁죠. 공간을 열게 된 것도,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동호회로 시작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보람이 있는 거지.

**현희** 나이 드신 분들이 오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죠.(웃음) 젊은 사람은 한두 번만 가르치면 따라 하지만, 우리는 열 번은 반복해야죠.

**의철** 가르치면서 잘 받아주고 노력하고 그런 거 보면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누구 가르쳐본 적이 없었는데, 동호회 하면서 나름 터득한 거야.



앞으로 너나들이 음악실이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의철**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음악 실력도 늘어서 바깥에서 버스킹도 하고 싶고, 봉사활동도 더 활발하게 하고 싶어요. 이 공간에도 많이 오면 좋겠고요.



두 분이 연주할 때 제일 좋아하시는 곡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현희** 우리가 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랑 '바다새'를 많이 해요.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다르니 좀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양로원에서는 트로트 위주로 하고, 사람 많은 곳에선 대중적인 곡 하고요. 다들 같이 부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으니까요. **의철** 통기타는 포크송인데 요즘에는 전자음 노래를 많이들 들으니까, 젊은이들하고 음악적인 소통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전에 조카들하고 어울리려고 개네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몰래 연습하고, 연주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먼저 시작하니까 조카들이 보더라고요. 조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요즘 음악도 들곤 해요.

너무 다정하신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고요.

**의철** 학창시절에 기타를 아버지가 세 번 부셨어요. 공부 안 하고 기타 친다고.(웃음) 그럼 또 돈 모아서 사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나씩 배워 놓으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나이 먹어서 배워도 좋고요.

**현희** 그런 마음이 있으니 지금까지도 기타를 할 수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와서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 기타라도 한 번 잡고, 색소폰 한 번이라도 불고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겨요. 나름의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의철** 전에 요양원에 봉사를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내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면 너무 좋아하는 눈빛을 보내고, 눈을 감고 감상하면서 막 빠져드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는 최고라고 엄지를 척 올리시고 손을 안 내려요. 제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본인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뿌듯하고 보람 있죠. 다음에 가면 이 곡을 들려드려야지, 하면서 연습해요. 공간을 운영하는 동기도 되고요.

**현희** 제가 옆에서 손익을 따져봤을 때 안 남아요 안 남아.(웃음) 그래도 너무 좋아서 하시는 게 느껴지죠. 저도 그렇고요.

인터뷰이 신의철, 염현희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조커피

JOE  
COFFEE

조성희

## 조커피에서 커피 한 잔 할까요? 일상 힐링카페



가능프라자 근처 북적북적한 상점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면, 모퉁이 자리에 위치한 카페 조커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은은한 조명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안심되어 마치 등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부 공간도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드라마 '커피 한잔 할까요?' 촬영의 흔적이나 단골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소품 등 디테일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힘은,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공간지기의 섬세함에서부터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운 날 대접해 주신 시원한 조커피 특제 음료로 열기는 식히고 마음은 덥히며, 조성희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간드림>으로 너무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드라마 '커피 한잔 할까요?' 촬영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셨다고요.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오성우 배우 팬분들이 최근에 오셔서 모임을 하셨어요. <공간드림> 이전에도 팬 분들이 생일 카페 이벤트를 매년 열었어요. 외국인 팬분들도 지하철 타고 많이 오세요. 번역기 켜서 소통해요. 저는 이런 이벤트 여는 게 너무 좋죠.

생일 카페 이벤트를 열면 팬분들이 굿즈를 만들어서 가져다 두시거든요. 그게 좀 남으면 생일 기간 아니어도 팬분들이 찾아 오시면 드리곤 해요.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캘리그라피 하시는 손님이 있는데 연초에 달력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의뢰를 드려서 캘리그라피 달력을 제작하고, 단골손님들이나 멀리서 찾아주시는 드라마 팬분들께 선물하고 있어요. 벽에 있는 그림도 손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손님들이 그려준 조커피의 풍경



손님들이 되게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동네 분들이예요. 제가 결혼해서 쪽이 동네에서 살았는데도, 동네 분들과 인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카페를 하면서부터 동네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며 어떤 분들이 사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커피 마시며 그림 그리는 손님과 우연히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요.

**<어울림> 프로그램에 강사로 함께 하시는 일러스트 작가님과도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20년 가까이 하다가 카페를 열게 된 거거든요. 작가님은 그때 만난 고객님의셨어요. 작가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세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고려할 점이 있었죠. 문 폭도 달라야 하고, 문턱이 없어야 하고, 싱크대가 낮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이니까 인테리어 도면을 다 그려주신 거예요. 색깔이며 디자인까지 다 정해주셔서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기 수월했어요. 작가님도 인테리어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고요.

그 이후로 제가 '저 카페 하고 있으니 시간 되면 오세요.' 하고 들이대는 식으로 연락을 이어갔죠.(웃음) 지금 공간에 이동식 경사로를 마련해 둔 것도 작가님을 비롯해 휠체어, 유아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편하셨으면 했어요.

그렇게 인연을 이어 나가다가, <사이공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특별한 걸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작가님랑 같이 아이패드 일러스트 드로잉 수업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런 사업이 처음이고, 그분도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기대로 시작하게 됐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도 수월하게 진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모집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카페 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림 그리기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여자 모집이 빠르게 마감됐어요.



조커피의 프로그램 '원년 작가 일러스트 공간드림에 배운다' 아이패드 드로잉 기초반'

**프로그램 진행해 보니 어떠세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0대 중반까지 참여자 연령대가 아주 다양한데, 서로서로 챙겨주는 분위기에요. 원래는 이 공간이 강의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매번 자리 세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 도와주시려고 하고요. 프로그램 외에도, 조커피는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는 공간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무언가를 다른 손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물도 주시곤 하거든요. 저는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분들은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세요.

**조커피는 인연이 잘 이어지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일할 때도 그랬어요. 만족스럽게 시공하면 계속 인연이 이어져요. 지금까지 연락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카페는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대접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사실은 믹스커피를 드리곤  
했거든요.(웃음) 그러다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핸드드립을 배우고 그 이후로부터  
핸드드립 커피를 대접하고 그랬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바리스타 강사 교육 과정에도  
참여했어요. 당시에 의정부시청에서 방송 영상  
촬영하러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가 이걸  
제대로 배우고, 자격증도 따서 우리 동네에  
커피 향을 풍기고 싶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조커피를 열며 정말 그게 실현된 거죠.

바리스타 교육을 듣게 되신 것도 커피를  
좋아해서 듣게 되신 건가요?

제가 '축각 책'을 만드는 교육을 듣고  
있었거든요. '축각 책' 선생님께서 바리스타  
교육을 접수해둔 상태였는데 못 하게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하게 해달라고 했죠.(웃음) 정말 우연히  
시작했어요.



배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둘째를 낳은  
후엔 제가 하고 싶은 걸 맘껏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축각 책'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게 10년도 더  
전인데, 지금까지 동아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조커피에서 전시도 했어요. 저와 친구들이  
만든 '축각 책'을 전시해 보니,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총집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져서  
뿌듯하더라고요.

한곳으로 모이는 게  
의미가 크다고 느껴져요.  
공간 활용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 동네에도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전시 공간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고 있어요. '축각 책'  
전시를 했을 때 방문한 손님 한 분이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이셨나 봐요. 학교 도서관에  
전시하고 싶다고 연결이 되어서 전시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작가님들도 여기에 전시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손님들과 관계를  
정말 잘 쌓아나가시는 것 같은데,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요즘에도 매일 오시는 손님인데 94세  
어르신이에요. 한 번은 계속 오시다가  
갑자기 안 오셔서 걱정되더라고요.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쓰여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혹시나 아프시거나 안 좋은 소식이 있을까  
봐요. 그런데 물어보니 어르신이 다른 카페  
다니신다고.(웃음) 다행이었죠. 그런데 또  
어느 날부터 커피는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찾아주시니  
감사하죠.

또, 아기 손님도 기억나요. 엄마와 아기 손님이  
오면 제가 아기를 좀 놀아주거든요. 엄마는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시면서 숨 쉴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저에게는 아기의 웃음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4월이 되면 노란 리본을 꺼내두는데 그걸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느껴져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공간인 것 같고요. 운영하시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관도 있을 것 같아요.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 이런 걸 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카페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어떤  
음악 소리보다 아기들이 조잘조잘하는 소리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은 손님끼리 서로서로 인사도 하고  
그래요.(웃음) 어르신 손님에게 '제가 오늘은  
커피 대접할게요.' 하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유모차 타고 왔던 아기들이 상싱카를 타고  
오고요. 앞으로도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요.  
또, 커피도 맛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핸드드립도 하고 좋은 원두를  
들여오고요.

앞으로 공간에서 해보고 싶은 것,  
상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커피랑 와인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웃음)  
LP도 틀어두고 싶고요. 어쨌면 저는 엘피판을  
틀었을 때 치지직 소리가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싶어요.

인터뷰이 조성희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안부,cafe

하선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잇고, 삶의 바람을 품는  
문화공유카페



안부,cafe는 흥선동 신촌교차로 큰길가에 있는 카페입니다. 벌써 사이공간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 3년 차인 안부,cafe는 지난 시간 동안 독서모임, 시모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배우는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3년간 안부,cafe에 드나든 참여자들이 서로 재능을 나누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도 하며 이제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간지기는 사이공간 참여 전부터 꾸준히 독서모임을 열어 왔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독서모임에 참여하며 마음을 지탱해 낼 수 있었다고 하세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 배움의 과정,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주는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열심히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간지기의 마음만큼 따뜻한 공간에서, 하선진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간 곳곳 달력을 보니,  
여전히 공간에서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울림>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공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어요. 한 달에 동아리 다섯 개 정도 운영이  
되는데, 독서 모임, 캘리 모임, 그림책 모임도  
있고. 학습 동아리도 있고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는 늘 그렇듯,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준비했어요.

안 그래도 시소그림책방에  
그림책 동아리 회원분들을  
소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그림책 동아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공간드림>으로 공간  
대관해서 주기적으로 그림책 모임을  
가지셨는데, 그게 동아리로 발전한 거예요.  
마침 시소그림책방에서 그림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고, 그림책이 특화된  
책방이다 보니, 동아리 회원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죠. 또 시소그림책방  
공간지기님은 지원사업을 처음 하시다 보니  
참여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이공간> 사업에 3년째  
참여하고 계시다 보니, 재능 많은 분이나  
배움의 열정을 가진 분을 많이 아시고,  
주변에 연결도 해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니 관록이 생겼나 봐요. 앞으로는  
저도 다른 공간의 <어울림>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지원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도움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기도  
해요. 이제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안부, 카페의 프로그램  
모임을 '남궁, 안부'로



올해 사이공간 참여 3년 차인데,  
연차를 쌓아갈수록 변화를 느끼는 게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처음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참여자 모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따로 참여하고  
있던 독서 모임 회원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랬죠. 일단 내가 아는 사람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2년 차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로 만난 분끼리 동아리를  
만드시더라고요. 처음 만났더라도, 프로그램  
같이하니 너무 좋다고 꾸준히 만나서  
모임을 하자는 제안을 먼저들 하세요. 그렇게  
점차 확장이 되어 가더라고요. 3년 차가 되고,  
공간이 매주 떠들썩 하다 보니, 이제 동네  
분들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뭔가 한다는 게 인식이 되었나 봐요. 올해는  
회차마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셨어요. 정원이  
다 찼는데도 찾아 주셔서, 자리를 만들어 가며  
같이 했죠. 공간이 엄청 꽉꽉 찼어요.(웃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행복하고요.  
매해 똑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  
해주는 강사님, 교수님들이 재능 기부로  
강의해 주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강의하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동아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입소문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  
정말 자리를 잡아가는 게 느껴져요. 3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들 아시는 거예요.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이 이곳을 인식하는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누구나 그렇듯 처음 사업에 참여하면  
단기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주인장의 노력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요.  
공간만의 색깔을 찾거나, <사이공간>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움직여야 견고해질 수  
있더라고요. 매번 사업에만 기댈 수 없어서  
내 색깔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3년 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지원사업이 없더라도 자생할 수 있으려면,  
단계를 밟아가야 해요.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 공간을 열게 되신 계기도 궁금해요.

저는 원래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고 육아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번아웃이 왔어요. 제가 번아웃을 극복했던 방법이 독서모임이었거든요. 아이들 학교에서 만난 학부모 독서 모임으로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됐네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 삶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모임이 흐지부지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때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번아웃이 오니, 일 외의 삶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건 정년퇴직하고 하면 된다고들 하지만, 그때는 왠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그렇게 공간을 차리게 됐어요. 이제 독서 모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니 모임 회원들이 다들 너무 좋아했죠.

공간을 운영하다보니깐 '그래,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미 좋은 직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공간 운영을 하나.'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도 좋았던 것 같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건축을 배울 때도, 공간은 결국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요즘 그 말이 공감이 많이 돼요.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분들뿐만 아니라, 카페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지내다 가시는 것 같네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2~3시간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요.(웃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오래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걸이 맞는 분들이 오곤 하세요. 여기는 그냥 카페 같지 않다고요. 작가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알음알음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오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많아요.

이 동네에 가방을 만드는 분이 살아요. 그분이 암 수술하신 후 조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서 가방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작품도 더 만들고 일주일 동안 전시를 했어요. 지인도 초대하고 커피 마시면서 보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공방하세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늘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이공간> 공간지기 분들에게 한 마디 건네주시고 도움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선생님만이 가진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해서 조언한다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간이 필요하면 이 공간을 내어주고, 고민을 말하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재능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다보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하지, 다른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남들에 비해서 두려움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재능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쓰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에 버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안부,cafe'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나요?**

지금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해 나가려고 해요. 오랫동안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와서 제가 좀 여유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시간도 잘 챙겨보려고 해요.

인터뷰이 하선진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동네공감

유수연



##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는 문화공간



동네공감은 청소년 바리스타 교육 공간이자, 동네 사랑방인 카페입니다. 공간이 넓고 밝아서, 삼삼오오 모여 같이 뜨개질하거나, 시장에서 장 봐온 식재료들을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심한 청소년들도 아지트처럼 드나들지요. 이 공간의 풍경을 보다 보면 문화공간이란 거창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분위기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분위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분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공간에 방문하는 사람들, 바리스타 교육을 거쳐 사회에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맺어 온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공간지기에게서 그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네공감에서 유수연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동네공감’은 사회적 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희가 원래 커피 동호회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공간 근처에 사무실처럼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동호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공간 근처에 청소년들이 지나다니고, 길가에 앉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초대한 것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된 거예요.

**얼마 전 동네공감 2호점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바쁘셨겠어요.**

그거 하느라고 여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웃음)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생겼는데, 저희가 그곳에 입점하게 됐거든요. 저희로서는 새로운 공간에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 바쁘게 오픈했어요. 이제 잘 해나가 봐야죠.

**<사이공간> 사업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예전에 ‘영희책방’에서 세미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공간>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울림>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관 지원 사업인 <공간드림>도 있고.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이공간으로 선정되어 좋아요.

동호회 사람끼리 후원금을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밥을 해주기 시작했고, 몇 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이사님이 커피 원두 로스팅 기술자신데, 아예 공간을 확장해서 로스팅 및 바리스타 교육장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규모가 커진 거죠.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마침 제가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자연스레 대표가 됐고요.(웃음)



**이 공간은 어떻게 얻게 되셨어요?**

여기는 원래 중국집이었다가, 1년 정도 비어있는 자리였어요. 저희가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을 싹 했죠. 다 저희 사비로 했죠.(웃음)



**이 동네에 사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랑방으로도 쓰이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방이에요. 매일 오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모임도 하시고, 채소도 사 와서 나누시고, 수세미도 뜨곤 하세요. 이 공간을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처럼, 공간 운영시간을 늘려볼까 싶기도 해요. 근처에 스터디 카페가 없거든요. 아이들 시험기간에 맞춰서 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여러모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만든 공간이니까요. 사실 만만치 않죠. 사회적 기업으로서 나아가려면 해야 할 것도 많고, MOU도 맺어야 하고, 평가나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실무적인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죠.(웃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열고 커피 교육 동아리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동아리는 지금 4기째 운영하고 있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아이들은 바로 카페 일에 투입될 수도 있을 만큼 실력이 좋은 정에 멤버예요. 학교 동아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밖에도 그런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계속 오죠. 청소년들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오거든요.

청소년들의 특성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도 신경 쓸 것이 많겠어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베이커리 교육을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온 거여도 소극적인 애들이 많은데, 막상 시작하면 다 잘하고 즐거워해요. 이곳에 오는 아이 중에서는 힘든 상황인 아이들도 있어요. 본인 상태가 회복되면 안 나오기도 하고, 다른 꿈이 생겨서 관심사가 달라지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냥 안 나오기도 해요. 안 나오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느라 안 나오는 거겠거니 생각하죠. 그게 더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도 청소년 교육 관련 일을 하셨나요?**

저는 화학 입시 강사였어요. 계속 아이들 만나는 일을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사교육이니 치열한 모습을 많이 봐 왔죠. 사교육 체계가 소모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죠.



무엇을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앞으로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처음에 공간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잘 쓰이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청소년들이 외로운 청년으로 자라는 건 정말 안타까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힘든 상황인 청소년들을 구제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공간에 멋진 로스팅 기계가 있어요. 로스팅까지 다 교육하시는 거예요? 보통 로스팅을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로스팅은 맨 마지막 단계예요. 보통 로스팅 단계까지 가는 애들은 꾸준히 1년 정도 나온 친구들이죠. 요즘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곳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요구해요. 경력이 없는데 어디서 일을 하고 경력을 쌓겠어요. 저희가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일자리를 마련해 직접 고용하기도 하죠. 저희 커피 교육 동아리가 청소년 창업대회에서 계속 상을 받기도 했어요. 동아리 졸업한 애들이 관련 학교, 학과로 진학하기도 해서 뿌듯한 마음이 있죠. 졸업한 아이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해요.

여기서 실습했던 청년 중, 7년 동안 은둔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일하고 행사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죠. 그러면서 많이 회복되어 사례 발표도 하고 지금까지도 가끔 일 도와주러 오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리 잘 맺어진 인연이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쉽지 않은데, 공간이 있으니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안부 묻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청소년들을 돕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라요.

**<공간드림>으로도 많이들 오시는데,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던가요?**

독서 모임으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보고 싶다는 분도 계셔서 장비를 꺼내드리죠. 이사님이 계시는 날에는 핸드드립 내리는 시범도 보여드렸어요. 너무 잘 이용해 주시니 저도 좋았죠.

인터뷰이 유수연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우리가치부엌



최혜영

## 제철음식을 배우고 나누는 공유부엌



이웃끼리 모여 밥을 나누어 먹고, 김장철엔 한 해 동안 먹을 김치를 두런두런 함께 담는 일상. '밥'과 연관된 공동체 경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메말라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치부엌은 흥선동에 위치한 마을부엌으로, 로컬, 제철, 채식 등 폭 넓은 식문화를 펼칩니다. 먹거리로 풍부해지는 삶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물과 같은 곳입니다.

공간지기는 전통 식문화를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꾸준히 해 온 베테랑인데요. 더 많은 사람이 밥 짓는 법을 알 수 있길, 그 역할을 마을이 해낼 수 있길 바라며 제철 요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우리가치부엌에서 최혜영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치부엌은 우리가치떡과 매우 가깝네요. 걸어서 10분 만에 올 수 있어요. 부엌은 언제부터 오픈하셨죠?



**우리가치떡카페와 우리가치부엌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데, 좀 어떠세요?**

떡카페에는 무인카페를 마련했어요. '샵인샵'이죠. 떡이랑 커피 제조를 같이하려니 너무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카페 음료는 무인카페 자판기로 대신하고, 저희는 떡이랑 전통차에 집중하고 있죠. 떡은 아침 5시부터 만들고 무인카페는 24시간 운영해요. 무인이다 보니, 다양한 분들이 자유롭게 쉬러 오시곤 해요.

부엌은 사실 적자죠.(웃음) 돈을 벌고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현상 유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려워요.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분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유부엌처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있긴 하죠.

**공간지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먹거리 배움에는 끝이 없어서, 지리산으로 제철 음식을 배우러 다녀요. 먹거리 관련한 프로그램도 계속하고요. 협동조합 관련한 대외 활동도 하고, 회의도 많죠. <사이공간> 사업도 운영하고, 지금은 의정부에서 로컬푸드 마켓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치부엌의 프로그램 '지구를 살리는 제철음식, 로컬푸드 레시피 학교'



**바쁘게 지내시네요. <사이공간>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프로그램명은 '로컬푸드 레시피 학교'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이번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픈하자마자 금방 마감됐어요.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요새 한식이 청년들에게도 화제인가 봐요. 회차별로 가지, 양배추, 감자 같은 식재료를 주제로 같이 음식 만들어 보고, 먹고, 가져가요. 후반부에는 개성주악, 송편 같은 한식 다과 만들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커리큘럼을 보더니 너무 좋다고,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봐요.

요즘에는 식문화로 문화 기획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경기 북부는 자연 경관이 좋고, 좋은 작물이나 농업인들도 많잖아요. 경기 북부 지역이 연합해서 먹거리 교육이나 인문학 강좌를 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둔 공간도 있으니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행해 봐야죠.



개성주악을 만들고 있는 참여자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찬 게,  
인기가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직접 진행하시는 건가요?

강사는 따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치제철요리연구소' 소장님이자 식생활  
강사이신 분이 진행해 주시고 있죠. 지역에서  
식생활 강사를 계속 양성하고자 해요.  
청년들이 이 일에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은 너무 강사가  
없어.(웃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장할지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식생활 강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만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나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깊이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하죠.

또 다른 계획도 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급식  
운동을 해왔거든요. 무상 급식, 친환경 급식  
운동을 해 왔고, 이제는 기후 급식이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급식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것도 좋고, 학교 안에 장독대를 두고  
아이들과 장을 같이 만들어본다거나 채소를  
텃밭에서 직접 키워서 먹는 것까지 해보면  
좋겠죠. 내년에는 토론회도 열고 기후 급식의  
중요성도 알리고, 식생활 강사도 양성하며  
확장해 나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먹거리 공부 좀 놀러도  
다니고.(웃음) 섬에 있는 특산물로 메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해보자는 연락이 와서  
궁리하고 있어요. '잘 됐다, 놀러 가자.' 하는  
생각으로 해보려고요. 먹거리는 좀 즐겁게  
놀아야지.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누구나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 번 돌봄센터에서  
아이들하고 쿠키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대관하셨는데, 그런 것도 참 좋죠.  
우리 목표는 제철 음식, 전통 음식을 많이  
교육하고 보급하는 거예요. 장 만들기, 김치  
만들기, 제철 음식, 로컬 푸드에 늘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요즘에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잖아요. 돌봄 중에서도 먹거리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니, 우리가치부엌은  
먹거리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를 매개로 연결되고, 바른 먹거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죠.



인터뷰이 최혜영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비브르 사 비



김준희

탈장르화 전시와  
모임을 추구하는 대안공간,  
삶의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공간



비브르 사 비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전시, 작업, 모임, 출판이 일어나는 예술공간입니다. 언뜻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에 대해 공간지기는, 굉장히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들꽃 한 송이일 수도 있고, 폐품이 쌓여 있는 모습일 수도 있으며, 그냥 흔한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말 그대로, 비브르 사 비는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냄새, 파스텔 톤, 클래식 음악, 조곤조곤 나누는 이야기, 흔하게 여긴 것에서 발견하는 이야기, 이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부드러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공간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소규모로 모여서 작업을 하거나 모임, 토론을  
하기 좋을 거예요. 원데이 클래스도 좋고요.  
드로잉 모임이나 필사 모임, 독서 모임도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가 저녁이 되면 또  
조용하고 아늑해져요. 여기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고즈넉한 분위기에요. 그런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공간을 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시각 예술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작업실이 필요해서 공간을  
열게 됐어요. 지금 동두천에 사는데, 더 많은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의정부로 나왔어요. 작업실로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핸드드립 카페를 운영했구요. 작업실인데 누가  
오시면 커피를 내어 드리는, 좀 경계가 흐릿한  
공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카페 위주로  
굴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카페는 그만두게 됐죠.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 왔어요.

여기는 가변적인 공간이에요. 작업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작업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로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때때마다  
주제에 따라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비브르 사 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오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늘 예술 공간임은 변함없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간판도 처음과 같고요.  
‘비브르 사 비’는 프랑스어인데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라는 의미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흔들리거나 힘들 때 생각하는, 저에게 만트라  
같은 문장이예요. 망설임 없이 공간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동명의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제가 추구하는  
영상미의 영화예요.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의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최근 만든  
간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사진이랑 영상을 주로 하고 주제에 따라서  
페인팅이나 드로잉도 같이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시된 게 제 작업들이고요.  
제 내면에서 필요한 주제에 따라 그에 맞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음악 작업을  
했어요. 뮤지션으로 활동을 오래 했는데,  
다양하게 협업하며 예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시각 예술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늦게나마 그림과 사진을 배워서 제 작업으로  
연장해왔어요.

**작업의 폭도 넓으시고, 에너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취미로는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독서를 제일 좋아해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 텍스트인  
것 같아요. 모든 작업의 시작도 글이잖아요.  
그런데 실 때도 좋아하는 책 몇 권 쌓아놓고  
읽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책 읽으며 쉬고  
나서 다시 충전되면 작업으로 돌아오게 돼요.

**공간지기님의 작업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찾아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오세요?**

전시하면서부터 발걸음이 시작됐어요. 지금  
기획 전시를 일곱 번 정도 열었거든요. 주변에  
좋은 예술가들이 있어서 초대전도 해보고  
공모전도 했죠. 전시를 보러 젊은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오게 된 거죠.

우연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인연이 된 분들이 많아요. 물꼬를 트고 나니까  
이웃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이공간>으로 연결된 분들도 많고요. 특히  
주변 공간지기와의도 종종 보게 됐어요. 이렇게  
바로 옆에 이웃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나니 굉장히 신기하고 든든했거든요.  
나 혼자만 덜렁 있으면 너무 외로울 텐데  
이웃이 있으니까, 이 동네에 재미있는 예술  
거리가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겼어요.



**우연히 들어오셔서  
인연이 이어진 분도 있다고요?**

최근에 우연히 오신 분인데, 미술 심리치료  
공간 겸 책방을 하시는 분이예요. 마침, 그날  
제가 전시 설치를 하는 날이라 사진을 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골목을  
잘못 들어서 우연히 지나치는데 궁금해서  
들어오셨다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향하는  
바도 닮아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돼서 이후에 전시회도 해주셨어요.

이번에 <사이공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우리는 예술이다'에서 저도 인물 사진  
작업으로 함께 하거든요. 제 작업의 마지막  
모델로 참여해 주셨어요. 우연히 시작된  
발걸음으로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며 서로가 되게 기뻐했어요.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술이다’라는 제목으로, 일곱 명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독립 출판 프로젝트예요. 따로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꼭 예술가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예술로 보는 관점에 공감하며 글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무엇이던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했어요.

책을 내는 게 꿈이었죠. 전시도 해보고 공연도 해보고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책을 못 내봤어요. 혼자서 출판하기에는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막연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았죠. 마침 책 편집하는 친구를 알게 돼서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보았어요.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작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정말 원하던 대로 잘 됐어요. 다음 모임에서는 책 표지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일곱 명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표지에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크레용 바탕에 스크래치를 내며 드로잉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걸 담아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공동 작업물이 표지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책의 작업 중인 스크래치 드로잉

**이 공간이 예술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상에 숨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찾아가는 게 늘 저의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버려진 물건이나 깨진 것들을 가져다가 작업에 많이 사용하곤 했어요. 깨지고 버려진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업에서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색깔도 밝고 따뜻한 느낌이고요.**

내가 왜 파스텔톤을 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주 어렸을 때의 어떤 느낌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어릴 적 행복했던 순간들이 조각조각 파스텔톤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순수하고 때 묻지 않고, 상처가 없었던 때의 온기를 지금 내 현실로 가져오는 작업이 파스텔톤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사진 작업에서도 채도를 낮추고 톤을 조절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현실을 좀 더 따뜻하게 비춰보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공간이나 프로그램에도 녹아있을까요?**

그렇죠. 이 공간에서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선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신기하게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답게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면 비슷한 에너지의 일과 사람이 올 거라는 믿음이 늘 있었거든요. 우연한 계기들로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걸 보면, 정말 믿는 대로 이뤄지고 있어요. 공간이 지향하는 바도, ‘삶 자체가 예술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거든요.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데요. 어르신들의 굴곡진 삶과 얼굴에 새겨진 주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삶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제 작업으로도 연결되고 있어요.

**앞으로 ‘비브르 사 비’는 어떤 공간으로서 존재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예술 공간이면서도 가변적인 공간으로 가려고 해요. 소규모 모임은 계속 만들 거예요. 예술이라는 주제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모임들 있잖아요. 올해 아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차차 만들어보고 싶어요. 제 개인 작업도 부지런히 이어 나가고 싶고요. 같이 하는 작업으로 인해 제 개인 작업에 대한 목마름도 더 생긴 것 같아요.



인터뷰이 김준희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프로그램 분위기도 궁금해요.**

참여자 나이대는 다양한데 성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의정부의 어떤 풍경을 좋아하고 거기서 얻는 영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책을 이미 만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 공간 기분전환!!!

김혜영



아주 조금  
더 나은  
기분을 위하여



공간 기분전환!!!은 더 나은 기분을 누릴 수 있는 기분 편집숍입니다. 기분이 다양한 이유로 바뀌고, 때로는 이유 없이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이곳도 때때마다 쓰임도, 목적도, 일어나는 일도 변화하는 가변적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기분, 일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기분, 응원받고 싶은 기분 등 공간지기의 기분이 반영되지요.

기분을 돌보는 콘텐츠를 다루는 만큼, 자신의 상태를 잘 살피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김혜영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전에 왔을 때랑 가구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공간 배치를  
자주 바꾸시나 봐요.



**아침에는 공부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할 거 하는 모임이에요. 저는 요즘  
비즈니스 모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공간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급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하자 싶었죠.  
다른 분들은 인터넷 강의도 듣고, 인스타그램  
준비를 위해 그림도 그리시더라고요.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 모임도 하시고  
나와서 일도 하시고 공간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될 때 공간을 얻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있으니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느껴지고요.  
갈수록 어떤 활동을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할 때 제게 오래 남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뭘 할까가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할까를  
고민해요. 대화에 꽃혀있고 수다 떨고 싶고  
대화 모임을 하고 싶어요. 요즘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구를 계속 바꿔 보고 있어요. 저는 공간  
안에서도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테이블도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하고요.(웃음) 공간도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공간 배치도 기분 따라  
자주 바뀌곤 하는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주로 이 공간에서 지내요. 하지만 공간을  
활용한 사업을 주로 하지는 않아요.  
애초에 뚜렷한 목적을 두고 꾸민 공간이  
아니에요. 친구들을 불러서 놀 수 있는  
아지트도 필요하고 일할 곳도 필요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막상 해놓고 나니,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고민 단계고요.  
여기에서 평일 아침에는 프리랜서들이 모여  
같이 일하는 모임이 열려요.

사실 지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웃음)  
갈수록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좀 더 뾰족한 내 일을 찾고 싶어요.

**오셨던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만났던 모임에서 나는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3회차 동안 만나면서  
일 얘기를 했거든요. 롤모델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는 내가 추구하는 워킹모델과 실제  
나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누고, 착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강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크게 공감을 받았어요. 일과 삶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이란 나의 삶과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사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다들 많이 공감하며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이야기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좋네요.  
다시 공간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어떻게 이 위치에 공간을 얻게  
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이 동네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컸어요. 이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거주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만족스러워요.

**정말 가까운 곳에 다른 사이공간도  
많잖아요. 집들이 모임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재미있었어요. 사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  
좋았던 것 같아요. 웃고 떠들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날 다들 엄청 친해져서  
찢찢됐거든요.(웃음) 서로서로 공간에  
놀러가기도 하고, 서로가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안녕!  
'Life is Mood:  
공간 기분전환!!!의 프로그램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 대화들이 쌓여서  
어떤 결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요. 다섯 명이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도, 이야기가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확산이 되며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지점인  
것 같거든요. 대화를 나누며, 나에게서 어떤  
점을 남길지 남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어울림> 프로그램도 고민이 꽤 많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브랜딩 클럽’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대화하는 모임을 하고 싶어서 주제를 브랜딩으로 잡아 보았는데, 오히려 시스템 공부라든지, 사람 공부나 마케팅 공부도 포함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과 관련하여 좀 더 확장된 주제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일 욕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공간 개관식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행사 윤곽이 좀 잡혔을까요?**

공간을 열기까지 도움을 주신 주변 분들을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그 목적에 맞는 분들을 초대해서 공간도 보여드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원래 이 공간을 열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대학교 동아리방 느낌을 항상 좋아했어요. 학교에 가서 동아리방에 가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잖아요. 함께 있는데 각자 할 일 하는 분위기로. 쓰임이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오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원래는 공용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은 처음 생각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에 제가 추구하는 기분은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자꾸 일에 관한 대화, 일에 대한 모임을 생각하다 보니까 ‘동아리방’ 느낌과는 결이 달라졌죠. 그런데 기분은 항상 변하는 거잖아요. 일에 몰입하다 보면 또다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게 될 수도 있고요. 주제나 형태는 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혜영님의 필요와 기분에 따라서 가변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겠어요. ‘기분’이라는 키워드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이름도 그런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기분을 돌보는 콘텐츠, 관계, 공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간 이름이랑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기분 편집숍’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싶었죠. 기분전환은 더 나은 기분을 편집해서 제안하자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지금은 일을 잘하는 감각에 몰두하고 계시고, 또 그걸 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일 외에 요즘 관심사나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일상 루틴을 가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루틴이 좋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웃음) 매일 꾸준히 하는 일에 나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기도 쓰고 러닝도 시작했거든요. 명상하듯 뛰는 거죠.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모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도 궁금했어요. 특히 아침 모임에 와주시는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주말 아침에 시간을 내서 오는 사람들이라 보니, 할 이야기도 많고 생각도 많거든요.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다음 과정을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때에 따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잘 쉬고 싶을 때는 쉬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일 욕심이 있을 때는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그래야 대화 속에서 서로 힌트도 발견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더라고요.



**같은 기분의 동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심플하게, 더 나은 기분을 만드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신을 돌보아야 할 때, 기분을 돌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차리고 기분을 위해 아주 작은 거라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나를 지키는 힘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기분을 돌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 와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공간의 뿌리예요.

**인터뷰이 김혜영**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ADK SPACE



이영일

## 삶을 예술로 채워 줄 아늑한 문화예술창작공간



ADK SPACE는 가능동에 위치한 예술공간이자, 다양한 예술가와 창작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펼치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공간으로 들어서는 회색 철문을 지나면, 아기자기한 주변 풍경과는 다르게 분위기 있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지고 라운지와 널찍한 연습실이 '춤 연습 하기 좋겠다.'라는 첫인상을 안겨 줍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간지기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공간 역시도 공간지기 만큼이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댄스부터 시작하여 연극,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니, 이곳은 공작소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자신의 주력 분야인 '춤'에 몰두하고 있다는 공간지기 이영일님은, 신념을 지키며 자신의 것을 갈고 닦는 예술가이자 장인입니다. 한 편으론,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선물하는 소소한 취미를 가진 이웃이기도 하지요.

그런 공간지기의 모습과 꼭 닮아 프로페셔널하고, 동시에 친근한 공간 ADK SPACE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제 청춘의 가장 마지막 시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트리트 댄스로 처음 예술을 접했고, 공연을 만들면서 꿈을 키워왔어요.

처음에는 춤을 추다가 공연복이 필요했는데, 사기에는 비싸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공연을 다니다가 공연만으로는 수익이 안 되니까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림도 배우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음악도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지금은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사이공간>에도 참여하고 있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춤을 추고 싶은가?'라고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춤을 해보고 있어요. 안무도 짜고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배틀도 다니고요. 지금은 춤을 좀 열심히 취보고 싶어요. 다른 활동들도 의미가 있지만요. 댄서로서 살아보자는 마음에 근래에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이 많이 들어요. 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무를 짜고 싶은 건지, 유명해지고 싶은 건지,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싶은 건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은 건지, 공연을 하고 싶은 건지... 사춘기인가 봐요.(웃음)



**연극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는 팀 '창작19다'에서 배우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즐겁게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고민이 있지만, 그들과 호호하고, 작업에 대해서도 배우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개무량해요. 문화에는 여러 장르가 있고 그 장르마다 사람들이 띠는 향과 재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작19다'에서는 질감이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거기서 힘을 받아요.

걸으로 봤을 때는 춤으로 시작해서 연기, 교육, 음악과 같이 다른 장르로도 계속 영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흐름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너 무슨 일 해? 뭐 하는 사람이야?'라는 질문이 가장 두렵고 무겁게 느껴져요. '춤추는', '무용하는'이라고 자주 표현하지만, 때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마주하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활동 분야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시는 중이지만,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스트리트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크루 'TEAM MOV'를 기획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크루 모임 겸 스트리트댄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느슨한 연대'를 구축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봐요!' 하며 모두의 의욕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죠. 참여자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좀 심심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발 물러서서 그들끼리 조금씩 친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영일 님은 결속력이 있는 활동을 많이 해오셔서, 허전한 기분을 느끼신 건 아닐까요.**

저는 '느슨한'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었어요. 스트리트 댄스, 힙합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식구다.' 이런 거요. 그게 작았던 저를 위로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서로서로 보호해 주고, 식구를 챙기듯이 끈끈하게 지내왔죠. 어렸을 때 그렇게 지내와서 솔직히 단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소속감, 결속력 같은 것들이 욕심이 나는 건 맞아요. 여전히 저는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진행해 보니 어떠신가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뒤편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진짜 친구가 되어서 너무 허물없이  
대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프로그램으로  
모인 거니까 운영자 입장으로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고민이 많다  
보니, 관계성을 원하긴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부담스럽기도 해요. 프로그램 참여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참여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SNS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통 SNS를  
보고 오셨어요. 의정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쉬고 계시는 분도 있고, 콘텐츠  
창작하시는 분도 있고, '너나들이 음악실'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세요. 연령대도  
다양한 편이에요. 고등학생부터 중년까지  
있어요. 보통 직장에 다니시고, 퇴근하고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결성된 팀으로  
공연도 예정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참여자들에게 너무  
부담이 될까 봐 목표로 두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까지 해서 'CRC 장기자랑'에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참여자분끼리  
팀을 꾸려 나가려거든 제가 안무도 다 짜고  
도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나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들이 원한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동네에 이웃 사이공간들이  
많이 생겼어요. 동네에 대한 인상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동네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새로운 공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젊은 사장님들이 이 동네에  
많이 들어오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동네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랑  
수다 떨다가, '이 동네 청년 사업가들이랑  
같이 스탬프 투어 같은 거라도 해보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 근방에 매력적인  
공간이 정말 많아져서 좋더라고요. 이런  
공간들이 많아질수록 동네의 문화가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할 거라는 상상을 해요.

**<공간드림>으로 많이들 찾아오시잖아요.  
공간이 너무 좋다는 후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3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오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공간 이용 후기를  
받는 것 자체가 되게 긴장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죠. 보통  
춤 연습이나 연극 연습을 하러 오세요. 매트  
운동 하는 분도 계시고요. <공간드림>을  
통해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ADK SPACE가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예술가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해요. 예술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죠.



**인터뷰이 이영일**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동아그림



임동아

그림과 폴댄스, 요가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을 커피와 함께 즐기는 아트카페



동아그림은 그림 클래스가 열리는 화실이자 카페입니다. 공간의 두 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공간을 포근하게 덮어 주는 햇빛을 즐기기도 좋은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공간의 정 중앙에는 폴댄스용 봉이 설치되어 있고, 지나다니다 보면 공간지기가 폴댄스 연습을 하는 모습도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즉, 공간지기를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벌써 사이공간 3년 차인 동아그림은, 공간지기의 변화와 동기화되며 조금씩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요. 공간지기는 최근 그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 그림으로 감정에 집중해 보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동아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동아그림은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간지기님이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정말 치열했어요.(웃음) 어떤 손님이 저를 보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도 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요. 남들은 이해 못할 것투성이인데, 내가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 공간에서 이어 나가고 있는 것에 에너지를 받는 분들도 많아요. 이 공간이 내 노력을 많이 담아낸 공간인 만큼,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위안과 힐링, 기쁨,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럼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지키려고 하는 규칙이나 가치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지네요.

꼭 지키려고 하는 건 정말 많아요. 다만 안 지켜질 때가 많죠.(웃음) 항상 손님 맛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우선 11시 오픈, 그리고 화분에 물을 잘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는 절대 빼먹지 않고 합니다.



공간을 운영하는 루틴을 정해두는 편이신가요.

루틴을 만들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제 아침 루틴은 물구나무서기예요. 제가 앉아서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움직여야 힘을 얻는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자세도 좋지 않고 목부터 허리, 눈, 손목, 고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운동에도 취미가 있으시군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업무에 속하게 됐죠. 계속 하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림도 안 그리면 손이 굳는 것처럼 운동도 계속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또, 공간이 굉장히 시내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 공간을 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엔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셨어요. 원래는 가운데 가벽이 있어서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쪽을 제 화실로 꾸며주셨죠. 그렇게 지나다가 공간에 불이 나서 가벽이 불에 탔거든요. 예전처럼 분리된 공간이 아닌 상태에서, 생각했던 걸 만들어보고자 해서 카페도 시작했죠. 제가 전에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페 레시피를 외우고 제조하는 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손님 응대하는 것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공간 처음 열었을 때부터 왔던 아이들을 보면 매번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컸는지... 저도 중앙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모교 앞에서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공간으로 이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예전엔 공간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고, '이렇게 해볼 걸 그랬나.'라고 후회하는 점도 있었는데, 조금씩 갖춰나가고 변화해 나가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점차 바뀌어나가면 되는 것을 그때는 한 번에 완벽하고 싶은 강박적인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어요. 이 공간을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동아그림은, 화장품 가게 옆 화실부터 시작해서 8년 정도 되었죠. 오래 지낸 만큼 이 공간을 지켜나가면서 동네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진짜 동네 예술집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이 임동아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이그노क्स



시월이

손윤이

댄스연습,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멀티공간,  
완벽한 오디오와 조명시설



이그노क्स는 의정부역 15분 거리에 위치한 라틴댄스 아카데미입니다. 아르헨티나 탱고, 밀롱가, 줌바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춤추기 좋은 탄성 마루, 거울, 조명, 음향은 물론이고 스크린, DJ 부스, 탕비실 등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간만큼 매력적인 공간지기는 다정함과 유머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 공간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웃는 걸 지켜보는 게 좋다는 공간지기는, 라틴 댄스를 소재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사람들이 라틴댄스를 좀 더 쉽게, 장벽 없이 접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은은한 조명빛에 댄스 플로어가 빛나는 이그노क्स에서, 손윤이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라틴댄스 강습소,  
굉장히 특별한 공간인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강습생을 모집하고  
클래스를 열어요. 이번에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셨던 분도 강습 등록을  
하셨어요. 또, 당근마켓에 광고를 내거든요.  
그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라틴댄스가 흔하지 않다 보니, 서울에서  
오시기도 하고요. <공간드림> 이용도 많이  
해주세요.



<공간드림>으로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강습생 회원분들도 많이 쓰시곤 해요. 떡을  
만들 수 있는 회원이 있어요. 그분이 다른  
회원들이랑 같이 떡 만들기 모임을 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는 외부에서 서른 명이 오신  
적도 있어요. 사실 인원이 많으니 추가요금을  
받아야 하는데.(웃음) 서른 명이 이 공간을  
새로 알게 된 거니까 만족해요. 이곳에 탱고가  
있고 살사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게 되니까요.  
알려지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이공간> 프로그램으로  
'탱고 테라피'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되게 반응 좋아요. 탱고는 체형 교정에도  
탁월해요. 허리도 교정할 수 있고, 걸음걸이도  
교정할 수 있어서 고관절 반경도 넓혀주죠.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야 하는지 몰랐다면, 그런 게 '탱고  
테라피'예요. 탱고로 일상을 바꾸는 거죠.  
돌아가면서 안기도 해요. 서로 잠깐씩  
안아주고 소감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루에 열 두 번은 안기를 해야 한대요.  
그래야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안아주라고  
숙제를 내드리는데, 되게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30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요.  
생각보다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서 아쉬웠지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 그게 좋아요.

정말 테라피의 효과가 있나 보네요.

춤에는 확실한 힘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사춘기일 때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살사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춤으로 풀어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아들이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사춘기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갔구나,  
나쁜 엄마는 되지 말자.'라는 마음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춤을 배우길 참 잘했어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렇게 춤을 시작하셔서,  
소셜 댄스 아카데미를 만들 만큼  
빠지게 되신 건가요?

할 게 없었기도 했고.(웃음) 사실 저는  
사람들이 웃는 걸 보는 게 좋아요. 강습할  
때도 사람들이 틀리면 막 웃거든요. 틀려도  
웃고, 만족해도 웃고요. 웃을 일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사실 공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도 많죠.  
매년 폐업해야 하나 고민하거든요. 이곳을  
운영하려고 아르바이트 하기도 해요. 힘들지만  
제가 접어버리면 이곳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좋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니 그만둘 수 없죠.  
많이들 라틴 댄스를 배우러 서울로 가시는데,  
의정부에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게 가장 큰 바람이죠. 의정부역과 신세계  
백화점 사이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넓은 데다,  
시내 근처라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되셨나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많이 투자했죠.  
공간이 정말 넓죠. 탄성 마루도 깔고, 천장도  
정비하고, 음향 장비, 디제이 부스, 탕비실도  
있고요. 빔 프로젝터도 있어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원들이나 이번에  
<공간드림>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여기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오시는 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까요?**

강습생 회원 중에, 병원에서 '사람과 접촉을 좀 하라'고 권유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치료 차 탕고 추러 오시는 거죠. 이번에 <사이공간>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 중, 평소 어머니 병수발 하며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우연히 당근마켓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셨대요. 그분이 매 회차 오실 때마다 조금씩 표정이나 분위기가 밝아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행복해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듣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죠.

또, 어떤 분은 탕고에 푹 빠진 지인을 보고, '그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빠지나' 하고 궁금해서 오셨더라고요. 참여하고 본인도 탕고에 빠지셨습니다.(웃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희 강습생 회원들이 신장이 1cm씩 컸다고들 해요. 춤이 자세를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사든 탕고든 조금 일찍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바른 자세는 습관들여야 하거든요.

공간을 운영하시며 '그래도 이걸 꼭 지키면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네요. 저는 항상, 남들이 많이 얻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익보다도 남들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공간 운영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웃음) 강습비를 인상할 때도 되게 많이 고민해요. 금액을 올려 받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강습비를 내는 사람은 무척 부담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비용을 내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죠.



자세를 교정하고 있기 좋아하는 회원들

**앞으로는 어떤 공간이 되길 바라시나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면서, 춤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저보다 잘 추는 강사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저한테 오시는 건 제가 관심을 많이 드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말해주고, 각자의 몸에 맞게 지도해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지만.(웃음) 활발하고 편하게 소통하는 게 좋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애정이 깔려있다는 걸 그들도 아나 봐요. 많은 분이 와서 춤을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조금 더 오래,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춤추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방처럼 올 수 있는 곳. 지금도 회원분들은 지나가다가 '선생님~' 하고 들어오거든요. 계속 그런 공간으로 이어지고 싶어요.



**회원분들이 주인장님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네요.**

공간을 운영하며 회원들 도움을 많이 받아요. 나서서 움직여주시거든요. 그게 제일 감사하죠. 제가 주변 분들을 많이 챙기려고 하고, 회원분들도 그걸 알아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보조 강사로도 나서주시고, 뭔가 필요할 때 가져다주시기도 하고요. 마음이 녹아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저도 이 공간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이 손윤이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기록의 조각

이슬비

따스한 자연광이 은은하게 퍼지는  
넓고 깔끔한  
단독 스튜디오



기록의 조각은 의정부역 바로 앞, 따스한 자연광이 은은하게 퍼지는 넓고 깔끔한 단독 스튜디오입니다. 공간지기는 블로그, 사진, 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쉬 없이 해 온 기록 베테랑으로, 일상 속 순간들을 한 조각씩 모으는 기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을 들인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도 진심을 담아 기록한다는 공간지기를 닮아, 기록의 조각은 자신의 순간을 정성 들여 남기고 싶은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는 공간입니다. 사진 촬영을 비롯해 마인드 맵핑, 회고, 글쓰기 등 나를 돌아보는 작업을 하기에 제격인 따뜻한 공간에서 이슬비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간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쭙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완전 N잡러예요.(웃음) 기록의 조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요. 남편과 함께 스냅 촬영 업체를 운영하며 광고, 결혼식, 돌잔치 등 외부 촬영을 다니고 있고요. 온라인 마케터로 SNS, 블로그 운영 대행도 하고 있어요. 여행 블로거로 출장을 자주 다니며 취재하고 포스팅하고 있죠.

**이 공간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기록의 조각은 셀프 촬영과 작가 촬영 옵션이 있는 스튜디오예요. 세미 웨딩, 가족사진,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전에는 망월사역 근처에서 스튜디오 겸 작업실 공간을 운영했고, 지금 공간으로 이사 와서 지낸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이전 공간은 열 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어요.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 마음에 넓은 공간을 찾아서 이전을 한 거죠. 옮겨오니 촬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어서 좋고, 공간이 넓으니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뻐요.



**망월사역 근처에 계시다가 지금은 의정부역 바로 앞으로 오셨는데 동네 간의 차이를 실감하는 부분이 있나요?**

망월사역은 서울 강북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죠. 그래도 역시, 저는 의정부 토박이라서 그런지 의정부의 중심이 의정부역이라고 생각해요. 찾아오기에도 쉽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죠.

**저희도 의정부 사람이라 정말 공감돼요. 또, 공간 이전 이후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모임이 열리곤 했나요?**

완전히 열려있는 모임이 열린 건 아니고, 저를 중심으로 지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졌었어요. 또 제가 SNS, 사진 등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곤 했죠. 테이블, 의자를 하나씩 마련하면서 넓혀갔었어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는 마인드맵 클래스와 사진 클래스를 진행하셨는데, 진행해 보니 어떠셨나요?**

저는 스튜디오에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 틀어놓고, 가만히 바람을 맞고 있으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혼자 일기 쓰거나 블로그 쓰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저희 공간은 시끌하고 에너지틱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울림> 프로그램도 앉아서 듣고, 생각하고,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어보는 활동으로 채워 봤어요.

참여자 모집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의정부문화재단 채널에 홍보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참여자 모집을 마쳤어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공간 분위기를 좋아해주셨어요. 공간에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라 편안하고 좋다고요.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프로그램 끝난 후 남아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기록의 조각의 프로그램 '기록의 조각'이 내 이야기!

**공간의 분위기와 힘 덕에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더 잘 녹아들었을 것 같아요. 슬비님이 보기에도 참여자들이 공간과 비슷한 결이라는 느낌이 있었나요?**

네. 생각을 깊게 하시거나, 무언가를 파고들며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질문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참여자 신청 양식에 어떤 이유로 신청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았거든요. 다들 진심으로 써주셨더라고요.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가볍게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분들이었어요. '나랑 닮은 이 공간에, 나와 닮은 분들이 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록의 조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나를 닮은 공간이면 좋겠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 쓰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곳에서 어떤 걸 할 건지 계속 고민했죠. 그때 SNS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키워드랑 잘 어울리는지 묻는 질문창을 올렸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기록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10년 넘게 블로그를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일기를 열심히 쓰고, 쓸 새 없이 찍고 남기는 완전 기록쟁이거든요. 그런데 기록은 인생 한 가운데에 큰 획을 긋는 게 아닌, 매일매일 점을 찍는 일인 거예요. 찍어낸 점들을 잇는 느낌이었어요. 그 점들이 일상의 조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다 '기록의 조각'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공간에서도, 외부에서도 바쁘게 지내시는데,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지향점이 있으실까요?



**많은 일을 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진심이 담긴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노력하시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객을 대할 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자들을 맞이할 때, 진심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사소한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진 등의 기록물은 계속 남잖아요. 그 기록의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볍거나, 진지하지 못하거나 성의 없다면 훗날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건 하지 말자, 내 태도에 늘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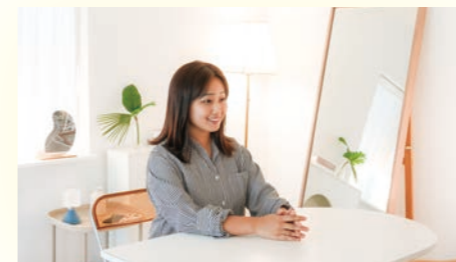
저는 이곳에 매일 출근해서 매일 촬영하는 사람인데, 고객님들에겐 이곳을 찾는 시간이 엄청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아이의 첫 생일이라거나, 결혼을 앞뒀다거나, 20년 만의 첫 가족사진이라거나, 일생에 한 번 뿐일 수도 있는 순간이 저에게는 매일 있는 순간이 되어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예약을 받을 때도 제가 좀 귀찮게 해요.(웃음) 촬영 전에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져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예약받지도 않고요. 예약한 분들이 오롯하게 공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사실 상업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약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 방식은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맞이하는 것부터 배웅하는 것까지 한 팀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정리를 싹 한 뒤에 다음 팀이 올 수 있는 팀으로 예약받고 있어요.



**앞으로 기록의 조각은 어떤 공간으로 꾸러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무채색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따뜻한 톤은 가져가되, 핵심이 되는 컬러가 없도록요. 저는 사진에서 피사체가 돋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려한 배경과 소품이 있다면 '와~' 하게 되지만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이 공간은 사진 찍히는 주인공이 주목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변신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라고 해서 촬영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클래스나 소모임도 많이 열 수 있다면 좋겠고요. 애초에 촬영을 목적으로 준비한 공간이니까 촬영은 정말 수월하지만 그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시도를 잘 못 해봤어요. 혼자서는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했죠. 이번에 <사이공간>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느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져요. 이후에도 공간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1인 사업자들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도 같이 나누고, 제가 전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품 촬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방 등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마음껏 쓰시면 좋겠거든요.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이슬비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시민단체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곳



시민단체를 지탱하는 힘은 서로서로 연대하는 힘이라는 공간지기의 말마따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의 공간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움직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가꾸고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함께 쓰는 것도, 하나의 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외부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공간에서 시민들과 만나 시원한 음료를 곁들이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여러모로 들여다보고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면 이 공간에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모임, 영화모임 등의 커뮤니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찾아달라는 김성길 공간지기와 만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공간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본부 사무실로 쓰고 계신 거죠?**

네 단체가 함께 이 공간을 쓰고 있어요. 여기가 꽤 넓어서,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이 혼자 이 공간을 쓰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주로 쓰고 있긴 하죠. 여기 들어온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은 의정부에 둔다'라는 조항이 정관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 안에서 계속 옮겨 다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이라는  
말에 걸맞게 경기 중부, 북부 전역을  
다니시면서 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공간을 유지하는 데는  
같이 지키는 분들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회원이 한 2백 명 정도 되거든요. 묵묵히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같이 열심히 움직여 주는 회원들이 계시고요. 편하게 쓰시라고 공간을 많이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가 주차하기가 힘들다 보니 선뜻 찾아오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돕고 연대하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현장에 다니고 있죠. 묵묵히 후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회원분들, 끝까지 연대해 주시는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단체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선배 때부터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 그걸로 버티는 거죠.



**이번에 <사이공간> 사업으로 동네에  
있는 공간들과 만나는 자리도  
가지셨잖아요. 이 근처 동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전에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공간을 계속 옮겨 다녔는데요. 주로 의정부2동 안에서 이동이 이루어졌으니, 이 동네는 굉장히 익숙해요. 오래 알고 지냈던 분들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가웠어요.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며 지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올해는 일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도 환경운동연합으로서 경기 북부 지역에 일이 많긴 하죠. 연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7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양주에서는 시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동두천에선 평화시민운동, 의정부에서는 시청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천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1기업 1단체'라는 사업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소요산 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죠. 또 활동이나 사업이 꽤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웃음)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환경영화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영화제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해요.



**참여자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요. 예술적이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데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또,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극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다큐멘터리에는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접하기 쉽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총 8회차인데, 7회차까지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는 비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경기중북부환경운동본부  
환경교육센터의  
공간지킴이 프로그램

또,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잖아요. 계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 시대인 요즘은 모든 도시가 그렇듯, 의정부에도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영화를 매개로 그런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현장에 다니며 연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싶고, 하고 있어요. 책 모임도 했고, 영화 모임도 했었죠. 영화를 함께 보려면 판권료도 내야 하고 상영관도 섭외해야 해서 꽤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이 좀 없더라도 늘 1년에 한두 편씩은 상영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참여하는 입장에서 책보다는 영화가 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활동하시면서 꼭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는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회용품 없는 공간으로, 다회용기가 늘 갖춰져 있죠. 에너지도 좀 아끼려고 하고요. 환경을 지키자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구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은 기후위기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공간드림>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평소에도, 사무실이 없거나 모임 공간이 없는 단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공간을 편하게 빌려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꼬박꼬박 빌려 쓰는 팀도 몇 있지만 더 많이 이용하셨으면 했는데 아쉬웠거든요. <공간드림>으로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었죠. 기존에 쓰시던 분들도 이용하시고, 다른 분들도 있었고요.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이 공간을 우리 회원들이 사용하고, 이웃들이 사용하며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요. 진짜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이 김성길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플로팅커피

김지현

김지은

커피에 진심인  
분위기 좋은  
로스터리 카페



플로팅커피는 의정부시청 앞 광장 사잇길에 있는 카페입니다. 주변에 관공서나 기업이 다양하게 들어서 있는 오피스 상권이자, 학교나 주택가를 가까이 둔 생활권이기도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잃지 않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지었다는 'Float your pace'라는 슬로건이 딱 알맞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지만, 해야 하는 일에 쫓기며 살다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적어도 플로팅커피에서 맛볼 수 있는 커피의 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도 일정합니다. 커피가 일상적인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커피 맛을 테스트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간지기의 진심 덕분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조금 한가로워진 오후에, 플로팅커피에서 공간지기 김지현, 김지은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 점심시간이 가장 바쁘시죠?

지은 네, 12시에서 1시 30분까지 손님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딱 점심시간에 오셔서 금방 드시고, 복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플로팅커피를 열기로 마음먹었을 때, 공간을 여러 군데 많이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이 동네를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지은 오픈할 당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장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오피스 상권을 위주로 많이 둘러봤어요.

지현 공간 면적도 중요했어요. 원두 로스팅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손님 테이블도 필요하니까 20평 전후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면적과 상권, 두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여기였어요. 신축이고, 오피스 상권인데다, 로스팅 장비를 둘 수 있을 정도로 공간도 넓더라고요. 그렇게 작년 1월에 계약하고 3월에 가오픈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은 지금은 로스팅 공장을 따로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이 근처에 있나요?

지현 3분 거리에 있어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가까운 곳에 공간을 마련했어요.

지은 거의 작업실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로스팅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정리해 두고요. 택배 작업도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 카페와 로스팅 공장, 두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지내다 보니 이 동네의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지은 소위 '진상손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대체로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하신 것 같아요. 동네 분위기도 좋고요.

지현 일정한 일상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며 점심시간이나 출근할 때 근처에서 커피 한잔하는 것이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은 분들이 많으니까, 고정층이 잡혀있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권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공간 조성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자영업과 관련해서 따로 컨설팅받으시거나, 배우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지은 지현씨가 엄청 꾸준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스타일이예요. 뭐든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지현 책으로 많이 공부하고 유튜브 강의도 봐요. 이론 위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죠.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주변 가게들도 이곳저곳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은 기본적으로 카페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서울로도 많이 다니고요. 시장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라서요.

지현 처음에는 로스터리 카페 위주로 다니다가 요즘엔 디저트가 좋은 곳으로 가보고 있어요. 적은 양이지만 디저트는 직접 만들고 있고, 좋은 디저트를 만들려면 다양한 것들을 먹어봐야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퀄리티 체크를 위해 내리는 커피

오픈하신 뒤로부터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꼭 지키려고 하는 가치관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지현 커피죠. 매일 커피 한잔하는 게 루틴인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매일 마셔도 자극적이지 않고 먹었을 때 가장 부담 없는 맛을 오래 고민했어요. 견과류의 고소함과 초콜릿의 달콤한 뉘앙스를 변함없이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뉘앙스가 잘 녹아있는지 퀄리티 체크를 해요. 꼭 지키는 루틴이죠. 혹시나 손님들이 많이 남기시면 먹어보고 왜 남기셨는지 분석하고요. 퀄리티만큼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은 이 공간을 오픈할 때 슬로건으로 삼았던 것이 'Float Your Pace'예요. 고유한 속도를 지키자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야 진정한 자기만의 속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이공간>에 참여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이 공간에서 해보고 지속하며 자기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공간 곳곳에 붙은 슬로건 'Float Your Pace'



카페터를 위한 10인용 테이블

저희는 '카공(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환영하고요. 와서 일도 하고 책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좋거든요. 저희도 '카공러'였고요. 편하게 쓰시라고 널찍한 10인용 테이블도 뒀는데 아직은 활용이 잘 되진 않고 있어서 아쉬워요.

두 분은 손님들이 오셔서 뭔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게 지금 진행하시는 <어울림>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됐을까요?

지은 그렇죠.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경험하시면 다음 방문으로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커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사실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소수일 수도 있어요. 살기 위해 카페인을 충전하는 것과 좋아서 즐기는 건 좀 다르니까요. 이번 프로그램으로 커피를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이랑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여자분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지은 되게 좋아하세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듣고 마시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 주세요. '퍼스널 커피 찾기' 수업 같은 경우는 원두를 10가지 정도 다 맛봤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어떤 분은 아기를 데리고 오셔서 커피를 즐기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아기가 있는 입장이다보니, 아기를 데리고 편하게 카페에 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커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퍼스널 커피 찾기' 수업



커피 티백 만들기

<어울림> 외에도 <공간드림>으로도 대관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지도 궁금해요.

지은 지난번에 1인 공방을 사장님들이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1인 공방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해야 하잖아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마케팅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방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함께 상의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저도 자영업자니까 공감이가기도 하고요. 또, 테이블이 커서 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식물 식재 수업 대관이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대관 신청자 분이 근처 식물 가게 사장님인데, 앞으로 뭘갈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플로팅커피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지은 커피 하나만큼은 로컬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커피는 로컬 브랜드가 주목받고,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도 꿈을 크게 갖고 있죠. 커피에 대한 목표는 그렇고, 저희 공간은 문턱이 높지 않은 카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관광지 카페들은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노키즈존은 기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문턱을 낮추어 더 편히 다녀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나들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건, 에너지가 섬세하게 쓰이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현 저희 슬로건인 'Float Your Pace'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싶어요. 누군가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살아가거나,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는 자신의 속도에 맞게 부유하고 떠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김지현, 김지은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대안공간 환호성

박의성



## 열정과 기쁨이 함께하는 대안공간 환호성

금초등학교 근처 조용한 주택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 어딘가 주변과 조금 다른 느낌의 작은 네온사인 간판과 입구 표시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면 마치 액션 영화 속 천재 해커들이 작전 회의를 펼치거나 피자 먹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낼 것 같은 느낌의 자유분방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안공간 환호성은 취미생활부터, 모임, 작업, 작당 모의, 공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아지트입니다. 보통 아지트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 곳은 즐겁게 놀고 싶은 누구나 환대하는 아지트입니다.

친구 세 명이 모여 편하게 지낼 목적으로 공간 운영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찾아주길 바란다는 박의성 공간지기와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대안공간 환호성’,  
이름의 뜻이 궁금했어요.**

이 공간을 친구 세 명이 운영하는데, 저희 이름의 끝 글자를 따서 지었어요. 알맞은 단어가 되어서 저희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공간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공간을 이루고 있는 소품이나 가구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애정으로 공간을 꾸미신 게 느껴져요.**

맞아요. 새로 산 것보다 각자의 애장품이나 집에서 쓰던 것들을 가지고 공간을 채웠죠. 레고도 그렇고, 걸려있는 그림도 같이 운영하는 친구의 누나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희 물건들이 많아요. 로고도 다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이번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희곡읽기’기념 티셔츠, 스티커 같은 굿즈를 만들었어요.



글자별, 이름난북, 문고판, 문고판, 문고판, 문고판

**친구 세 명이 함께 공간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운영 방식이 궁금해요.  
박의성 공간지기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따로 하고 있고, 대안공간 환호성에서는 <사이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임이나 재밌는 일을 열 때 서포트 하는 역할이에요. <어울림>으로 진행되는 희곡 읽기 프로그램은 강사가 따로 있는데, 강사님이 프로그램 진행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보조하고 있어요. 가끔 결원이 생기면 제가 역할을 맡아서 같이 희곡도 읽곤 해요.

**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친구의 친구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는데, 서로 잘 통하고 거주 지역이 비슷해서 친해졌어요.

**신기하게 인연이 이어졌네요.  
희곡 읽기 프로그램의 강사분과도  
인연이 있었다고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원래는 극단 쪽 일을 해 왔고, 희곡 읽기 모임을 계속 해 왔죠. 대안공간 환호성 가오픈 기간에, 여기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레크레이션처럼 즉흥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상황만 주고 알아서 연기를 해보는 거죠. 연기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때 이 공간이 이런 활동을 하기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희곡읽기’ 참여자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사이공간>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걸까요?**

그렇죠. 원래도 그런 활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비전문가니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친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참여자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연기 생활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 소리 하는 선생님, 희곡 읽기를 좋아해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독서를 취미로 가지고 있었는데 색다르게 여러 사람과 교감해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혼자서 독백으로 읽다가 사람들과 호흡을 나누니까 너무 좋다고 하세요.



**처음엔 이지트로 사용하실 생각으로  
조성하셨는데, 운영하다보니  
이 공간에서 뭔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저희는 세 명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공간에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 공간이 비어 있기보단 많은 사람한테 열리고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이공간> 사업은 작년에 처음 알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의정부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랐어요. 올해 지원하려고 모집 공고를 기다렸죠.

또, 저희가 기존 <사이공간> 참여 공간들과는 좀 다른 유형인 것 같기도 해서, <사이공간> 사업으로 다양한 공간을 선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다, 싶었죠.





서울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의정부에 공간을 열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친구 만나러 의정부에 와본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의정부가 접근성이 꽤 좋더라고요. 와 보니, 이 동네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조용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켜보니 이런저런 문화 활동들도 많아 의외로 꿈틀대는 에너지가 있다고 느꼈어요. 시내 한 가운데처럼 너무 복잡한 곳보다는 이런 분위기가 저희랑은 더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요.

또, 가까운 곳에 같은 사이공간인 카페 꽃동네와 아트볼프로젝트가 있어서 집들이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도 해주셨어요. 저희가 원하던 바여서 기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잘 알려지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활동하고 계시던 좋은 분들과 만나 커뮤니티까지 확장할 수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앞으로도 이 근처 분들과 무언가를  
같이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럼요. 사실 제일 손이 안 가는 건 공간만 빌려드리고 ‘여러분 와서 놀고 가세요, 이용하세요.’ 하는 거지만 저희도 재미있는 일을 벌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는 영화 모임도 있고, 보드게임 모임도 해요. 수제 맥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데,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 불러서 같이 만들어보고 그래요. 지금 기획 단계인 것들도 많아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좋아하는 걸 프로그램이나 모임으로  
녹여서 진행하시니, 공간지기의 일상이  
녹아든 공간처럼 느껴져서 좋아요.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느끼실 것  
같고요. <공간드림>으로 많이들  
찾아주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공간에서 너무 즐겁게 있다가 가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저번엔 한 자매가 부부 동반 모임으로 찾아 주셨어요. 처음 계획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으셨나 봐요. 그런데 막상 오셔서 레이싱 게임만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승부욕이 발동해서요.(웃음) 서로의 새로운 면을 봤다, 하고 소감을 보내주셔서 기억에 남아요. 또, 보드게임 모임도 자주 하시곤 해요. 근래에는 작은 공연이나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저희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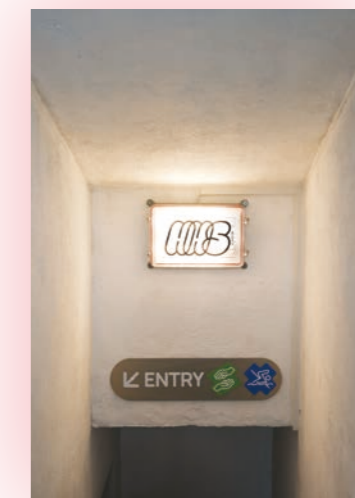
이 공간의 생김새처럼 알록달록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유로운 분위기인 만큼,  
세 분이 운영하시니 ‘우리 이것만은  
잘 지키자’라고 정한 규칙도 있나요?

친구끼리 모여 운영하는 것이니 서로 배려하고, 위하고, 일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도 나누고 그래요. 저희는 딱 정해진 규칙이 있다가보다 이슈가 있으면 바로바로 메신저로 소통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고, 모두가 각자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저희 셋이서 큰 다툼 없이 일상을 잘 유지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화로움’이라는 가치는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싶어요.

이 공간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앞으로는 흥미로워 보이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와서 흥미를 찾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계속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앞으로 꾸준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실 레지던스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전에도 한 번 했는데 꽤 좋더라고요. 개인 작업도 좋고 사무실로 써도 좋을 거예요. 어떤 분이라도 환영합니다.



인터뷰이 박의성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아트볼 프로젝트

조은지



## 예술작업의 실험과 만남의 공간 \_모임, 워크숍, 전시



무엇이든 담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빚어낸 넓고 움푹한 그릇 같은 곳. 아트볼프로젝트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전시, 워크숍, 플리마켓,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아트볼프로젝트는 5년 전, 미술학원으로 시작해 점차 문화예술 교육 공간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재는 더 넓은 범위의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간지기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공간이 변화해 온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 현재 '아트볼프로젝트'라는 그릇에 어떤 것이 담겨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지기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작업하는 곳이기도 한 금오동 꽃동네 초입. 아트볼프로젝트에서 조은지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트볼프로젝트’는 5년 동안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업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작업실을 같이 쓰는 친구들도  
생겼고 점차 반경이 넓어져서 몰랐던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했어요. 내가 하는  
기획이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트볼프로젝트가 5년 차가 되었다고요.  
뭐든지 5년 차쯤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저와,  
저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요. 주로  
놀러 다니고 있죠. 운동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갖게 됐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웃음)

예전엔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그 일에 맞춰서 생활 루틴이  
짜였어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재미와  
에너지를 느꼈지만, 동시에 정신없이 일을  
쳐내야 하기도 했죠. 지금은 공모 사업을  
줄이고 일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특히, 금오동 꽃동네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재미있어요.  
아트볼프로젝트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놀러 다니다곤 했지만  
마냥 한가하진 않네요.(웃음) 이런 시간을  
보냈으니, 내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플리마켓도  
처음 열었다고 들었어요.**

예전부터 플리마켓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백만원실험실>로 물건과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전시하고 교환하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때부터 물건을  
매개해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플리마켓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재미있잖아요.(웃음)  
플리마켓이라는 행사가 아트볼프로젝트와도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셀러를 모집할 때  
기준을 세워서 선별할지 무작위로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나 허들을 두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상업 공간도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둔 공간이었으니까요.



**‘작업 공간이자,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결이 이어져 나가고 있네요.**

아트볼프로젝트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시각 예술을 하고 교육을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만든 공간이거든요.  
특히 여기에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을 거르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서울이었으면 좀 달랐을까 싶긴 해요.

**공간과 공간에서 열리는 프로젝트에도  
그런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제한을 두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그렇지만 아주 상업적인 용도는 여기랑 맞지  
않다고 느껴요. 전에 어떤 학습지 브랜드에서  
공간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재미있는 건  
언제나 환영이고요.



**<공간드림>으로도  
많은 이들이 찾아오셨잖아요.**

소모임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동네 모임도  
있고, 영화 모임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특히, 탕비실이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공간드림>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릇 써도 되냐, 뭘 해 먹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다 가능하거든요.  
이야기할 때 차 마시고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도  
다과를 신경 써서 준비하신다고요.**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이란 단순히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그날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조명, 날씨 같은 분위기의 영향도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사람의 감각을 열기도 하고요. 또, 음식은 다들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트볼프로젝트의 프로그램  
'ABF : Art Bowl Film'



**아트볼프로젝트는 사이공간 참여 2년 차  
공간이에요. 이번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이랑 다른 부분도 궁금해요.**

작년에는 회차마다 각각 다른 호스트가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했죠. 프로그램을 기회로 평소에 호스트에게 관심 있었던 사람을 아트볼프로젝트에 초대하는 것으로 기획했어요. 관계를 확장해 보는 게 목적이었죠. 저와 호스트가 일차적인 관계, 호스트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이차 관계로요. 그런 목적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트볼프로젝트에서 만난 분들이 잘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결해 준 것 같아서 뿌듯해요.(웃음)

올해는 한 주제로 길게 가져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재미있는 걸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영화를 주제로 했어요. 영화제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콘셉트나 목적이 분명한,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트볼프로젝트에서는 동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동네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 중에 영화를 만든 감독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동네 영화 GV도 기획했구요.

**앞으로도 영화제를 이어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영화제 계속하고 싶어요. <어울림> 프로그램 해 보니,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보다 우리 동네 감독 영화에 더 관심과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감독이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누군가는 '나도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5년 차 접어들고 나니, 지금까지는 단발적으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이제는 좀 큰 맥락에서 끌고 가고 싶은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으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동네를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이어가신다고요?**

네트워킹이 거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동네에서 '진짜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자리가 몇 번 있었어요. '안녕파티'라는 행사가 기억에 남는데, 사업비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금액을 나눠 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은 공연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면서 연말을 같이 보냈거든요. 또,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도 했었고요. 여기서 매일 점심도 같이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금오동 꽃동네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 산장' 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공간을 운영하지만, 주변 이웃들이 없었다면 혼자 있었다면 쭈뼛거렸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하니 좋은 영향이 일어나네요.

**앞으로는 어떤 공간으로  
꾸려가실 예정인지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간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면 이제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지속될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인터뷰이 조은지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카페 꽃동네



강현욱

임주영

꽃동네 일상 속  
커피 한 잔과  
여유를 담은 카페



‘노오란 205번 마을버스에서 내리니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네’라는 <어울림> 프로그램 이름대로, 카페 꽃동네는 의정부동과 금오동을 가로지르는 205번 버스의 종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꽃동네 주민,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쉬기도,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잠깐 숨을 고르기도 하신다는데요. 이곳은 정류장 옆의 또 다른 정류장인 셈입니다.

‘프로젝트 산장’팀으로서 금오동 꽃동네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는 기획자님은 회의 장소를 찾아 카페 꽃동네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연이나 워크숍 장소로써 대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공간지기와 기획자가 의기투합하여 <사이공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카페 꽃동네 근처에 가면, 향긋한 커피와 디저트 향기가 흘러나올 뿐 아니라 종종 재즈 음악 소리도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주영 공간지기와, 강현욱 기획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 일러두기

꽃동네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마을 '하금오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하금오리'라 했고, 전쟁 이후에는 '절동네'로 통하였으나, 당시 마을의 노인회와 부녀회의 주도로 길가에 꽃을 많이 심어 '꽃동네'라는 새로운 이름이 자리 잡게끔 했다고 합니다.<sup>1)</sup> 현재 꽃동네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페 꽃동네를 운영하는 임주영 공간지기님, 그리고 카페 꽃동네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강현욱 기획자님.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주영** 처음에는 현욱님이 손님으로 저희 카페에 오셨어요. '프로젝트 산장' 팀에서 자주 오셔서 회의도 하시고요. 그러다 작년에, 여기서 재즈 공연을 하고 싶은데 대관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거든요. 그때 처음 뭔가를 같이 해보기 시작했죠. 올해 <사이공간> 사업이 있는데 관심 있는지 몇 번 물어보셨어요. 관심은 너무 많은데 아는 게 없어서 엄두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더니 얼마 뒤에 또 오셔서 '도와줄 테니까 한 번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게 됐죠.

1) 의정부문화원, 『의정부 땅이름 이야기』 2021, 89-91

## 공간지기님은 카페를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주영** 카페 꽃동네는 5년 운영했어요. 이 공간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카페였고,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2016년에 꽃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도 있었거든요. 원래는 모녀가 운영하던 카페예요. 제가 이 카페 단골이었거든요. 어느 날 사장님이 카페를 내놨다고 '너 카페에 관심 있지 않았니?' 하시며 한 번 해보겠냐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죠.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나름 오래 했었어요. 카페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하더라도 노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오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제가 처음부터 공간을 꾸며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선뜻 할 순 없었을 거예요.

## 그럼 이 카페는 예전부터 '카페 꽃동네'라는 이름으로 불렸나요?

**주영** 예전에는 상호가 '뚜아'였어요. 제가 이름을 바꿨죠. 멋진 이름을 짓고 싶다가도, 이 동네는 어르신들도 많고 '뚜아' 카페가 오랫동안 있었던 터라 상호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바꾸긴 바꾸되 익숙한 이름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카페 꽃동네'로 지었죠. 동네 이름이니 당연히 친숙하고,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 이름도 '꽃동네 종점'이거든요. 오픈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뚜아'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웃음)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미는 어떤 걸로 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주영** 최근에 부용천 따라서 달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아침 여섯시 정도에 출발하면 사람이 별로 없고 돌아올 때 슬슬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독서는 오래 전부터 이어온 취미이고요.

**현욱** 저는 계속해서 꽃동네에서 펼치는 활동, 연극 기반의 활동에 관심사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마음 건강에 관심이 생겼어요. 얼마전에 공연했던 작품에서 배우 두 명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을 돌보는 일에 대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나 취미가 완전히 다른 두 분이 함께 <사이공간> 사업을 운영하게 되셨는데, 그래도 마음이나 방향이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영** 타인에게 관심이 많다는 게 현욱님과 저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현욱님은 이 동네에 살기도 하셨고, 계속해서 꽃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꽃동네에서 살지만 동네 자체에 애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좀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현욱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카페 꽃동네가 동네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걸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조금 다르지만, 계속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 저희의 공통점이자 연결점인 것 같고 <사이공간>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서로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영 현욱님은 본인에게 맡겨지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게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현욱 아닌 것 같은데...(웃음) 주영님은 외유내강이에요. 그런 사람들 멋있잖아요.

현욱님은 작년에는 '프로젝트 산장'으로, 올해는 '카페 꽃동네'로 <사이공간> 사업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현욱 동네에서 더 연결되어 확장되고, 연속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공간이 주는 느낌도 많이 다르죠. 프로젝트 산장은 동네 안쪽의 '산장아파트'에 있었는데요. 다소 폐쇄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도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보다는 창작에 중점을 둔 기획을 했었어요. 카페 꽃동네와 함께하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기대됐죠. 참여자를 따로 모집하지 않고,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형태도 확장해 봤어요. 이곳은, 유일하게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네에서 문화예술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좋은 공간이라고 느꼈죠.

카페 꽃동네의 프로그램이다. 2025년 말 버스에서 내리니 어디든 나가 돌아올 수 있다.



주영님은 <어울림> 프로그램 함께하시면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것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주영 이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계실 곳이 없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바깥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었는데, 어르신들이 오가며 앉아서 마을버스 다니는 걸 볼 수 있는 정류장 방향으로 돌려 두셨거든요. 진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올라가는 짧은 구간에도 몇 번을 쉬셔야 하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그늘에서 기다리시면 좋고요. 사실 저도 저 자리를 포기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장사가 잘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기 손님이 앉아야 하는데...'. 양가감정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예 어르신들이 쉬다 가시는 자리라고 마음을 먹으니 편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사이공간>이라는 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바깥 자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저만의 <공간드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꾸려나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주영 요즘에는 다들 먹고살기에 바빠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움을 겪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챗GPT'에 위로를 받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사람들과 만나고 모이고 듣고 이야기 나누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야간 독서 클럽'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저녁 10시에 모여서 각자 편한 자리에 앉고 가져온 책을 새벽까지 읽는 거죠. 책을 주제로 이것저것 너무 하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요.(웃음)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같이 달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욱님이 찾아와서 재즈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 값진 공연이 무료로 열리는 데 더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사이공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특히 집들이로 다른 공간지기와 얘기 나누었는데,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뭔가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사업을 활용해서 선순환을 도모하고 계신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제가 꿈꾸는 삶이 그런 삶이라서요.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걸 시도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지만, 현욱님 덕분에 진짜 큰 걸음을 뚫은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죠.



인터뷰이 임주영, 강현욱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바오공방카페



한미진

정영숙

가족공예수업과 수제청수업을 하며  
서로 편안한 소통을 하는  
우리만의 공간



바오공방카페는 가족공예 공방과 카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만들기에 열중하는 사람, 점심식사 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 더위나 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는 사람, 수다를 떨며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내는 사람 대부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하는데, 동네 사랑방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두 공간지기를 '작은 사장님', '큰 사장님'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가족처럼 가깝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벌써 10년 이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정직함으로 마음을 모아 의기투합하고 있는 '작은 사장님' 정영숙 공간지기, '큰 사장님' 한미진 공간지기와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공간에서 계속 상주하며 지내시는지,  
다른 일도 같이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미진 공간에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상주하고  
있어요. 저는 외부에 가죽공예 수업을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클래스를 열기도 해요.  
영숙 둘 다 상주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서로 번갈아 가며 공간을 지키고 있죠.



공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영숙 22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4년차가  
됐네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같이  
공간을 꾸리게 되신 거예요?

미진 처음에는 애들 때문에 만났죠.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이제 벌써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남편끼리도 친하게 지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졌네요. 두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가족처럼 지내시네요. 학부모 모임에서  
친해져서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는 건  
그럴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일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계기가 있나요?

미진 일단 둘 다 집에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웃음)  
영숙 원래는 큰 사장님이 따로 가죽 공예  
공방을 운영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쉬는 중이었는데, 큰 사장님이 공방도 옮길  
겸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고민하다가 그냥 놀기만 하느니 재밌는 거  
한 번 해보자 싶어서 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공간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미진 순수하게 우리말 이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오'가 우리말이에요.  
'바르게'라는 뜻이 있어요. 카페도 공방도  
정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있죠. 저희는  
음료도 다 수제 청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 동네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미진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긴 주위에  
유치원이랑 아파트, 주택도 있고요. 사무실이  
많아요. 다들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나오거든요. 그런 특징을 눈여겨봤죠. 또,  
저희는 공방과 카페가 함께 들어와야 했던  
만큼, 너무 좁지 않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평수와 임대료 조건도 맞아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영숙 공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가벽도 세우고 인테리어도 했어요. 공간  
분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처 동네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미진 많이 찾아주시지만 대부분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세요. 가게에 머물다  
가시는 분들은 보통 4~50대 분들이시고,  
조용히 담소 나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세요.  
영숙 그런 분들이 오셔서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가죽  
공방을 같이하니깐 구경거리도 있고 이야기  
나누기 좋으니까 꾸준히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 정해두신 공간 운영  
규칙이라거나,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으실까요?

미진 저희는 먹는 것에 아끼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주스도 다른 걸 섞지 않은  
원물 100%거든요. 사실 시럽 가져다가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수제  
청을 직접 담아서 음료를 만들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재료를 속이지 말고 먹는 것에  
아끼지 말자는 건 지키고 있어요.

영숙 그렇게 만든 것치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어르신들은 알아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웃음) 사실 저희  
인건비는 안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라 욕심내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진 그래서 공간 이름도 '바오'로 지었죠.  
바르게 하자는 마음으로요.

혹시 두 분이 같이 일하며 ‘이런 건 좀 맞춰가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적도 있는지 궁금해요.



**미진** 둘이서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오히려 룰런의 비결일 수도 있죠.(웃음)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공간에 나와있으니까요.

**영숙** 부부지간에도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면 싸우잖아요.

**미진**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물론 서로 이야기하고, 만들 것 있을 때 같이 만들고 하지만 또 각자 할 일들도 있거든요. 서로서로 이해해 줘요. 근무 시간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영숙** 내내 혼자 운영하면 힘들죠.

**미진** 저희는 둘이 합이 잘 맞춰져 있으니까 누가 만들어도 음료 맛이 변함없이 똑같아요. 손님들이 매번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둘이서 하니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 서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우리 큰 사장님은 워낙 친화력이 좋아요. 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좋아하세요. 최근에는 수제 양갱도 배우셨어요. 물론, 판매 목적도 있고 공간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큰 사장님은 배우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죠. 재주도, 에너지도 많고. 강점이 많은 분이죠.

**미진** 그러다 보니 제가 말을 세게 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툭툭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사장님이 잘 받아주세요. 사람이 말투 하나에 서운해지기도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잘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우실 때마다  
공간에 반영하게 되니까 자주 찾아오면  
매번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재미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영숙** 저희는 시즌에 맞게 큰 사장님이 늘 메뉴 개발을 해요.

**미진** 다가오는 겨울에도 늘 나가는 시즌 메뉴가 있어요. 꽃차 같은 경우 직접 덖어서 만들어두고, 유자쌍화차도 만들거든요.

유자는 철에 한 번에 많이 사서, 몇날 며칠을 만들죠. 유자 안에다 열 한가지 약재를 넣고 찌서 만들어요. 겨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영숙** 작년에 가장 인기 상품이 쌍화차랑 레몬생강차였어요. 보통 청을 담글 때 그냥 과일에 설탕을 넣잖아요. 저희는 좀 더 진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즙을 내요. 비정제 원당을 쓰고요.

**미진**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이에요. 먹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죠.

####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미진** 총 3기로 진행하고, 기수별로 수업은 3회 정도 진행해요. 가족 공예도 하고, 수제 청도 만들고요. 저는 한 번만 수업하고 가는 건 정 없다고 생각해서, 같은 사람과 여러 번 수업하는 방식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니 참여자분들도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 기수 당 2회 정도로 줄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죠. 신청자가 많아서 못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 참여자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미진**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마감도 빨리 되고, 대기 참여자도 있었고요. 처음 가족 공예를 해보시는 분들도 너무 재미있어하시고 수제 청 만드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집에서 나와서 같이 하니 너무 즐겁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좋았죠. 참여자분끼리 모임도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모임을 할 거라도 하시더라고요. 영숙 그분들이 <공간드림>으로 대관해서 소소하게 모임을 하고 계세요.



수제청, 양갱, 꽃차, 레몬생강차, 유자쌍화차, 비정제 원당을 사용한 수제 청, 스텐다리에, 기념품, 공간지기, 어울림 프로그램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바오공방카페’가 이제 5년 차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미진** 일단 우리가 즐거워야 하겠죠.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요. 그럼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영숙** 동네 안식처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가게 앞 길가 청소하는 분들 만나면 커피도 한 잔씩 드리곤 하거든요.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저희 가게 앞을 더 열심히 쓸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이 오가는 게 좋아요, 저희 공간도 그렇게 정이 오가고 쌓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정영숙, 한미진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라운공방



진금숙

천연의 향기를 나누는  
따뜻한 손길  
향기나는 공방



라운공방은 <사이공간> 사업 참여 2년 차 공간으로, 친환경, 천연 재료로 화장품과 아로마 제품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창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공간이기도 합니다. 피부숍을 운영하며 성분 좋은 천연 화장품의 필요성을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게 되어 공방까지 열게 되었다는 공간지기는, 국제아로마테라피협회원으로서 클래스나 제품 개발, 트렌드 분석을 놓치지 않는 프로이자, 수강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원동력을 얻는 따뜻한 이웃입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명품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클래스를 기획했고, 그 결과 순식간에 전석 매진! 인기 폭발이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방문했는데요. 문을 열기도 전에 창 너머 눈짓으로 환하게 반겨 주는 공간지기와 대화하다 보니, 사람들이 라운공방에 자꾸만 오게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라운공방에서 공간지기 진금숙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이공간>으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올해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천연 화장품 만들기'를 진행하셨는데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올해는 재료와 레시피가 업그레이드됐어요. '명품 화장품'에 초점을 맞춰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직접 사용할 화장품을 만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샴푸바나 고체치약 클래스는 올해도 이어서 하고요. 만들어서 사용해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다는 참여자분들이 많아요. 만족도가 높죠.



요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바쁘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높다는 걸 바로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기쁘죠. 우리 프로그램이 11시에 시작하니까, 점심시간이 겹쳐서 배고프잖아요. 옆 가게에서 김밥이랑 커피랑 이런 거 준비하거든요. 참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어떤 분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집에만 있었대요. 그러다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물을 봤나 봐요. 그렇게 라온공방을 알게 되어서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라온공방

공간지기를 위한 프로그램인 어울림, 라온공방의 <어울림> 프로그램은



라온공방의 <어울림> 프로그램은 늘 전석 매진이더라고요.

홍보물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참여자 모집 마감되었어요. 대기까지 걸어두실 정도예요. 누구 한 명 빠지면 연락 달라고들 하세요.(웃음) 이번 프로그램으로 만나서 참여자끼리 모임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 모임이 <공간드림> 참여로 이어졌고요. 자발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간을 대관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쿨렐레 연주 모임인데, 나도 수업 없는 날은 구석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라온공방 옆 편의점 아가씨도 재미있어 보였는지 "여기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묻기도 했고, 하루는 와서 노래 부르고 가기도 했어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만나신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공간드림> 참여로 이어졌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공간드림>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고, 주변 분들에게 "한 번 신청해서 공간 써 보세요." 권유했는데 올해는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어요. 저녁때 되면 여기서 명상하기도 하고, 호박도 썰어서 같이 나눠먹고요.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라온공방은 아파트 단지 안 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는 생활이 중심이 되는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만큼 친근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쓸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드는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느껴져서, 이곳에 공간을 꾸리게 되었어요. 조용하니, 몰두하기에도 좋고요.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오세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더 웃긴 것 같아.(웃음) 각각 다른 동네에 사는 분들이 오세요. 비교적 먼 동네, 고산동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프로그램만 하고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모임까지 결성된 거예요. 여기에 와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도 말이예요. '쭈마들의 밤마실'이라는 모임명도 붙었죠. <공간드림> 대관 지원이 끝나도 계속 와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 오시라고 했죠. 모임하실 때 저도 옆에서 있다가 같이 네일아트도 하고 그랬어요. 재미더라고요.



공간지기 진금숙



멀리서도 올 만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 공간이  
넉넉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요.(웃음)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오세요. 지난번엔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주민인데  
오가며 항상 궁금했다고, 요즘 심란해서 공예  
클래스를 한번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무 때나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수업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밖에도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곤  
해요. 그냥 쉽터처럼 쉬었다가 가시면 좋죠.

<어울림> 프로그램이나  
클래스가 없을 때, 평소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웃음) 여기서 계속  
컴퓨터로 다른 곳은 어떤 걸 하나, 비누가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나, 패키지는  
어떤가, 새로운 레시피가 있나 그런 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늘 연구는 하고 있죠.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랑이  
캐릭터 상품 공모에도  
도전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일 몰두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딱히  
상금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고, 취미로  
재미있어서 하고 있어요. 의돌이와 랑이로  
'차량 석고 오너먼트 채색 키트'를 만들었어요.



차량 석고 오너먼트 채색 키트



취미로도 공예 제품 만들기를 하신다니,  
취미와 업에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또  
새로운 곳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이 잘 되면  
그때 또 기분 좋아지긴 하지만요. 일단 이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생각하다 보니, 취미와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참여자들이 클래스에서 뭔가를 만들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드릴 때 뿌듯하고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공적인 향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 수업에서는 천연 향을 맡으며 본인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니, 힐링도 되고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서 어르신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세요.

계속 말씀 들어보니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뭘 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번에  
프로그램 오신 분들한테도 옥수수 한  
무더기로 나눠드리고 그랬죠.(웃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서서 뭘 자꾸 주게 되더라고요.  
먹는 거나, 오셔서 제품을 만들어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다른 제품도 하나씩 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떤 공간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나요?

누구나 쉽게 와서 손으로 뭔가 만들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지방이 낮은 공간이요.



인터뷰이 진금숙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퀸즈뮤직

권문희



누구나 함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악 연습실



퀸즈뮤직은 우쿨렐레를 비롯한 악기를 연주하며 생활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실입니다. 공간지기가 우연한 계기로 우쿨렐레 동아리를 만들게 되고, 우연한 계기로 열게 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동아리 회원들끼리 도란도란 앉아 하모니를 맞추어가고 있다며, 합주 영상을 보여주는 공간지기의 얼굴에 웃음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공간을 열게 된 건 우연한 계기보다도, 음악을 사랑하는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직해 온 음악가의 꿈이 이 모든 것을 이어지게끔 하는 힘이 된다는, 권문희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며 지내고 계시는데, '퀸즈뮤직'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수업하고는 별개로 어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나요?

**퀸즈뮤직은 어떤 공간인가요?**

퀸즈뮤직은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 악기 중심 연주 공간이에요. 저는 동아리 운영, 공간 운영을 하고 있죠. 외부에서 우쿨렐레, 오카리나 강의도 하고 있어요. 경기북부지역아동센터에서 특기적성 강사로 소속되어 일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는 17년 정도 되었어요.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우쿨렐레, 오카리나를 전공하셨나요?**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치위생과를 졸업했구요.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건 교육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바이올린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 충격이었죠. 연주법이 간단한 오카리나를 가르쳐주다가 이렇게 흘러 흘러 음악 교육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음악을 원래 좋아하셨나 봐요.**

원래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성악을 했어요. 음악의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치위생과로 진학했지만, 다시 이렇게 흘러와서 음악하고 있네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매년 발표회를 해요.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데, 선생님들도 무대에 올라가서 좋은 연주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아 연주단을 만들었죠. 모으고 나니, 연습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이곳저곳 전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연주단 멤버들이 다들 음악 선생님이다 보니, 연주를 틀릴 때 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취향이 확실하다 보니 곡 하나 정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주단은 3년 정도 유지하다가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은 남고, 일반 어른들을 모집해서 동아리 형태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동아리 연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회원분들이 같이 손을 보태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문희님이 도맡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공모 사업을 많이 했어요. 회원들이 거의 다 주부인데, 사실 주부들이 꾸준히 취미생활 하러 나온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회비를 내기도 힘들고요. 액수에 상관없이, 아이가 아닌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어딜 나오고 그러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대신에 공모 사업 할 때 회원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 동네에 공간을 얻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회원분들이 이 동네에 많이들 계세요. 그리고 한 회원분이 다리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앞 아파트에 사니, 오기 편하도록 이곳으로 정하게 됐어요. 회원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죠. 또, 회원들이 주로 차를 가지고 오니까 주차가 편리해야 하겠더라고요. 여긴 아파트 상가라서 주차가 편하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항상 노랫소리가 들려서, 주변 분들이 이곳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계신가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창문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하죠.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기도 해요.(웃음) 바로 아래 아파트 정자가 있는데 많이 모여계시거든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차마다 우쿨렐레로 한 곡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곡도 같이 해보고 싶었지만, 오시는 분들이 한 곡씩 완성하는 걸 더 부담 없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호도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죠. 연령대는 되게 다양한데요. 젊은 분들도 한두 분 오셨고 40대, 50대가 주로 오세요. 또, <어울림> 참여자로 왔던 대학생 친구가 <공간드림>으로 와서 친구들과 노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간을 유지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규칙이나 가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올해는 <사이공간> 사업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처럼 레슨비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는 사실 동아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우쿨렐레 오케스트라단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쿨렐레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래하고 반주하는 악기 정도로만요. 저는 반주roman 하지 않고 타브연주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의 규모를 키워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해 왔는데도 잘 알려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숙제가 아직 남았죠.

공연을 위해 공연장 대관을 하려고 해도, 클래식이 늘 먼저더라고요. 생활음악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요. 대극장 대관은 아예 안 되다시피 하고요. 내가 돈을 주고 빌리려는데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안타까웠어요. 공연을 하려고 해도 이 안에서 전문음악과 생활음악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요. 생활음악의 레벨을 끌어올려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공간이 꼭 있어야 해요. 그러니 제가 이 공간에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죠. 영역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설 곳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속상한 마음 한편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엇보여요. 그런 꿈 같은 게 이 공간에 담겨있어서 그만둘까 하시다가도 공간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음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서 이런 활동으로 흘러 흘러 오게 된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단을 만들고 싶다는 말이 조금 과한 표현일 순 있겠지만, 계속 꿈꾸고 있어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좀 더 연결되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인원이 많을수록 소리가 더욱 풍성해지니까요.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퀸즈뮤직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하모니’라고 생각해요. 본인 소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소리도 듣고 같이 어울려 맞춰가고요. 호흡과 걸음을 맞추며 음악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 권문희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빛날화

정인화

## 야외 테라스와 식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 압화공방



꽃이나 나뭇잎 등 식물을 눌러 납작하되, 생생한 모습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압화 공예. 그런 압화가 가진 다채로움만큼이나, 차고 넘치는 매력을 가진 공간 빛날화입니다. 발곡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옵니다. 또, 커다란 호두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테라스가 있지요. 공간지기의 멋진 압화 작품을 감상하며,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14년간 해온 압화가 여전히 재미있고, 새롭다는 공간지기는, 하나하나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온 공간에서 차근차근 작업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인화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압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압화는 14년 정도 했어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압화 공예품을 만들어 플라마켓에서 판매도 하고, 소소하게 압화 수업을 하기도 하며 압화 작업을 이어왔죠. 압화 이외의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함께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압화 공방을 운영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제가 학교를 잠시 쉬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압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셔서 갔지요. 만드는 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요. 그때 압화 작업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식물을 봤어요.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식물 구경하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압화를 10년 넘게 할 줄 몰랐는데 하고 있더라고요.(웃음) 전 반복되는 작업은 쉽게 지겨워하고, 질리면 바로 멈추거든요. 그런데 압화는 매번 계절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식물은 종류도, 모습도 너무 다양해서 해마다 새로운 식물을 계속 만나거든요. 작업을 오래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미있어요.

**원래 지하상가 '청년몰'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여기로 옮기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공간은 원래 제 작업실이었어요. 공간이 절반씩 나뉘어져 있었고 한 쪽엔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고, 안쪽 공간을 제가 썼죠. 그러다가 '청년몰'에 입점하게 된 거예요. '청년몰' 공간이 너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식물을 다루는 사람이고, 식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지하에서는 식물을 키울 수가 없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계절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늘 아쉬워서 작업실 절반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작년에 자리가 나서 원래 쓰던 작업실 공간과 합쳐 지금의 모습이 됐죠.

**10년 넘게 하셨는데도 즐겁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 대단하게 느껴져요.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취미가 업으로 이어진 거네요.**

처음 압화 수업을 들었을 때, 저 혼자 20대였고, 60~70대 되시는 분들과 함께 배웠어요. 동기들이 다 어르신이라, 어린애가 와서 하고 있으니 귀엽게 봐 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서로에게 간섭하거나 캐묻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나이 상관없이 다 같이 압화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매년 한 번씩, 3년 정도 계속 배웠어요. 지금은 그 수업이 없어졌지만, 그때 만났던 선생님과 아직도 만나서 모임도 하고 수업도 받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도 오래 거주하셨다고 했는데, 이 동네가 가진 특징이 있을까요?**

주변에 자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다 논밭이었고, 바로 옆에 굴다리를 넘어가면 그쪽엔 아직도 밭이 크게 있거든요. 조경된 자연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연이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가깝게 학교가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특징이에요.



**학교 근처는 지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나다니는 분들이 한 번씩 들어와 볼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항상 열려있으니까 궁금한가 봐요. 들어오는 분은 없는데, 바깥에서 궁금한 눈치로 보는 분들은 계세요. 한참 쳐다보시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들어오셔서 원데이클래스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원데이클래스보다는 정규반 수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선뜻 정규반으로 들어오기는 부담스러워하시곤 해서 연결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정규반 수업이나,  
개인 작업 외의 다른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 공모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이공간>  
사업도 하고, 의정부시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청춘아지트>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테라스 데크에서 요가도 했어요. 바비큐  
파티도 하고요.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나의 이야기를 식물로 매개 삼아 그림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게 나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짜고짜  
하기는 어려운데, 식물로 나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하면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  
표현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를 몽글몽글  
풀어내세요.



.테라스 정원 : 이웃 나눔,  
공공포럼 | 어울림



**결과물을 그림책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데이 클래스처럼 회차마다 매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엮어내는 결과물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책으로 하면 내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았어요.  
저도 압화로 그림책을 출간해서, 관심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나의 일생기,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아끼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진행하며,  
오히려 제가 배우기도 해요.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서로 엄청 칭찬하세요. 매번 본인 것만 안  
예쁘고 다른 사람들 건 다 예쁘다고.(웃음)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이야기 나눠요.  
참여자분들 연령대도 비슷하고 다들 식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 식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화기애애하고 수다 떨면서 작업하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요.(웃음) 그리고 엄청  
열심히 참여해 주시거든요. 시간 될 때  
개인적으로 오셔서 보충 수업을 할 정도로  
열정적인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죠.



**공간을 기반으로 지키려고 하는  
가치나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식물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살다 보면 바빠서  
계절 가는 걸 모르기도 하잖아요. 여긴 식물이  
항상 있는 곳이고, 오는 분들이 식물을 잘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식물을 본다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감각적으로  
건드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또, 여기서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어요.



**'빛날화'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오래된 압화 공방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수강생분들을  
만나면서요. 동네마다 오래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슈퍼라든지,  
문방구라든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우리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요.

인터뷰이 정인화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아띠 패브릭아트 스튜디오

최지은

김한빛

창작과 영감이  
머무는  
따뜻한 감성 예술공간



아띠 패브릭아트 스튜디오는 어린이 미술교습소이자, 두 공간 지기가 다양한 재료들로 사부작사부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입니다. 버려진 것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아한 공상'이라고 부르며, 더 많은 '우아한 공상'들과 만나고 싶은 두 공간지기의 바람대로, 이 공간은 발랄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삼 면에 창이 나 있어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이 밝아, 아이들과 함께 만든 미술 작품들과 재료들의 알록달록한 색이 선명하게 느껴져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공간의 밝은 에너지에 한뫼하는 것은 절친한 두 공간지기의 티키타카와 웃음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전 직장 동료로 만나 퇴사 후 함께 공간을 연 후로 쭉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데요. 열정을 불태울 때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도, '우아하게 공상떠는 일'도 함께 해서 더욱 즐겁다는 김한빛, 최지은 공간지기를 만났습니다.

아띠 패브릭아트 교습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한빛 공간은 어린이 미술교습소로 운영하고 있지만, 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되길 꿈꾸고 있었어요. 4년 차가 되니 '역시 교습소만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 외부로 수업도 나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에 올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지은 전 직장 동기로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다보니 관심사가 너무 비슷했죠. '언젠가 둘이서 뭔가를 해야할 것 같다.'라는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언니가 한 번 뭘 하고 싶으면 바로 해야 하는 스타일이라,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더라고요.

한빛 저도 속으로는 '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걱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은이는 오히려 '좋아, 그럼 우리 거기서 뭘 더 해볼래?' 이런 식으로 호응해 줬어요.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아서, 저희가 지금도 미술교습소에 머물지 않고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합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지은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그 코드거든요. 저희가 별로 친하지 않았을 때, 저희끼리만 통하는 개그 코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빛 이거다 싶었죠.

지은 얘기하다 보면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말이 너무 많아서 수다를 금지해야 할 때도 있어요. 둘이 되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한빛 그래서 너무 좋죠. <사이공간> 하면서 더 많이 의지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저는 서류 작성이나 예산 관리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 친구한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저는 낫을 좀 가려요. 나서서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럼 넌지시 '지은아 말해봐~' 갔다와~' 하죠.

지은 저를 자꾸 시켜요.

퇴사 후 아이들과 미술로 이야기 하는 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한빛 아이들이랑 만나서 미술 작업을 하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을 때 생각도 많이 났어요. 너무 좋아요. 다만, 저희만의 작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둘 다 육아하러 가야 하고, 커리큘럼 연구에 시간을 써야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건, 저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미술학원 선생님이고 그림 엄청 잘 그려요.'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일이 재미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전에는 출근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공간에 나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도 서로 많이 나누거든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라니, 나 너무 설렌다.' 하고요. 그런데 지은이도 똑같아요. '출근하며 여기로 걸어오는 데 마음이 좀 몽클하고 일렁거렸어'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선생님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저도 오히려 더 보람을 느끼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전 직장에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일과 비슷하게  
미술 관련 일이었나요?

한빛 일반 사무직이었어요. 원래 저는 미술 관련 일을 하다가 출산하며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경력 단절로 집에만 있는 게 힘들고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지은이를 사수로 만난 거예요. 제가 일은 안 하고 맨날 거기서 그림을 그렸거든요.(웃음) 그런데 지은이는 되게 좋게 봐주더라고요.

지은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일반 사무직을 하게 된 거라서요. 그리고 둘 다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둘이 생각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일과 공간에 대한 애정이

너무 잘 느껴져요. 어떻게 이곳에서 공간을 열게 되셨어요?

**지은** 언니가 산책하다 이 공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삼면이 다 창이라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게 예뻐 보였대요. 그래서 여기를 알아보게 됐어요. 공간이 아주 작지도 않고, 집에서 되게 가까웠거든요.

**한빛** 여기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은이한테도 바로 연락했죠. 계약 직전까지 며칠간 매일 공간을 보러 올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두 분은 4년 동안 지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한빛** 싸웠죠.(웃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부처럼 서로 말 하나에 상처받았던 때가 있어요.

**지은** 싸워도 잘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우다 보니까 서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요. 싸워가며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는 안 싸운 지 진짜 오래됐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수업하는 걸 넘어서 외부에서도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의 활동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빛** 아이들과 함께해서 좋은 것과는 별개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재료를 섬세하게 집중해서 다루는 작업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외부 출강 기회가 와서 그러면 여기에 다 쏟아내자, 여기서 못 하는 건 거기서 해보자 했어요. 다른 곳에서도 저희 활동을 보고 연락이 오고, 그런 식으로 점차 넓혀가는 중이에요.

**지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말하는 대로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 활동이나 이번에 <사이공간> 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나이를 대상으로 활동하니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사이공간> 사업으로도 참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지기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공간지기분들이 저희보다 나이가 있으신데도 활발히 활동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아주 어리진 않지만, 시간이 더 지나더라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구나, 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빛** '정이든다 작은도서관'의 광지항 공간지기님이 주변 공간들을 잘 챙겨주세요. 저희 공간을 대관해서 이용하기도 하셨고요. <사이공간> 사업을 하면서 의정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 <어울림> 프로그램도 빨리 매진된 것 같은데, 진행하시면서는 좀 어떠세요?

**지은** 저희가 진행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제목은 '우아한 공상'이에요. 사실 우아함과 공상은 서로 먼 단어잖아요. 남은 걸로, 버려진 걸로 사부작거리는 게 공상맞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우아해지고 싶은 사람이면서 공상맞은 일을 하니까 우리처럼 '우아한 공상러'들을 모아보자,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저희가 기획하면서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참여자분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서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3대 모녀가 신청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만큼 모든 연령대가 함께 하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감사했죠.



**한빛** 근처에 사는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먼 곳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은 후 의정부에서만 일하다 보니 고립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지도 여쭙보고 싶어요.

**지은** 아주 거창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취지, 재밌는 시도에 공감하는 마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빛** 미술교습소로 시작했지만, 저희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 같이 그림도 그리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유하는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점차 펼쳐가고 싶어요.

인터뷰이 김한빛, 최지은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이규빈, 박예은, 최지은, 김한빛

# 힐링워커스



전은미

## 사운드워킹과 기록이 꽃피는 조용한 감성 놀이터



힐링워커스는 '노르딕 워킹', '사운드 워킹' 등 걷기를 매개로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원래 공예 공방을 운영하던 공간지기는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운동, 걷기를 만나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이를 계기로 공방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며 걷는 '사운드워킹'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운드워킹은 걷기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 소리를 유심히 들으며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걷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걷고 그 기록을 남길 것인지를 쉽 없이 고민하는 전은미 공간지기를 만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원래 이곳은 공방이었어요. 여러 공예 자격증 수업이나 학교 단체 수업을 나가며 공간을 유지했는데 코로나 때 그게 딱 끊겨버리고 공간 유지가 어려워 고민이 많았죠.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정리하는데 매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공간 문은 매일 닫고, 사람들의 관심은 더 떨어지고요.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의욕이 한 번에 사그라지면서 아무것도 못 했죠.

그러다가 제가 운동을 접하게 됐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던 시기라 지금보다 살이 18kg 이상 더 썬있었거든요. 실내 운동은 못 하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르딕워킹으로 조금씩 야외 활동을 하고 운동도 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자연스럽게 노르딕워킹 강사를 하게 됐고 점차 사운드워킹까지 하게 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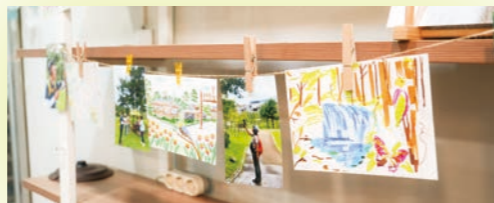
저의 변화 과정에서 공간을 계속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재료니, 기자재니 공방 짐이 많았거든요. 버릴 거 많이 버리고, 나눔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이 공간을 좀 비우며 공방을 정리했고 공간명도 '힐링워커스'로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공간이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셨네요. 노르딕워킹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르딕워킹은 폴 두 개를 가지고 걷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바르게 걷는 기술을 익히죠. 폴을 이용해서 밀어내며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며 걷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6개월은 울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웃음) 꾸준히 노르딕워킹을 하며 자세나 걸음, 호흡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사운드워킹은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노르딕워킹을 하시는 분이 사운드워킹도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노르딕워킹과 많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과 환경과 일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느꼈고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노르딕워킹부터 사운드워킹까지, 이 공간을 건강한 운동과 걷기에 관련 있는 것들로 채워진 공간으로 다시 꾸미게 되신 거네요. <사이공간> 프로그램 이전에도 걷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작년에 문화도시의정부 '정책마켓'에 참여했는데 시장님이 제 정책을 사주셨거든요. 평생학습원에서 수업 제안이 와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동아리 모집도 했어요. 노르딕워킹에 대해서 배우며 동아리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죠.



사운드워킹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기록을 한 줄이라도 남기고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요즘은 단절되잖아요.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이공간> 프로그램도 기획하게 되신 것 같아요. <사이공간>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의정부 곳곳에서 사운드워킹을 진행하며 소리를 채집하고, 공간으로 돌아와 함께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서 걷기가 어려웠지만 참여자 반응은 좋았어요.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왔다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거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도 좋겠다는 피드백도 주시고요.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떠나서 함께할 수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하니까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정부는 어딜 가나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뒷산에 가도 항상 들리고요. 사운드워킹할 땐 맨 귀로 먼저 들은 다음 녹음기로 소리를 들어보곤 하거든요. 녹음기로 들으면 도시의 소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들려요.



그럼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나 규칙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명, 모든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느껴요. 그냥 숲을 걸거나 산을 올라도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길이 아닌 길로 가며 내 발자국을 아무렇게나 찍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음악 틀어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존중과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서로 쉽게 상처 주고, 쉽게 고독해지는 시대인데 사운드워킹과 같은 걷기 운동을 하며 마음을 다독이면 상처받은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으니 사회문제도 계속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에서 외로운 마음도 꺼내놓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말씀대로 사회 문제나 개인이 가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걷기를 처음 시작하게 되신 것도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거 같아요. 직접 사운드워킹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시는 변화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지네요.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리게 됐어요. 갱년기의 감정 기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정이 확 올라오다가도 밖에 나가서 걷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있죠.



많은 분이 <공간드림>으로도 찾아주시더라고요.

꾸준히 대관해서 재봉틀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재봉틀이 있지만 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모여서 서로 배워가며 본인들 작품도 만드시고, 제가 지금 입은 옷도 만들어주셨어요. 반팔 셔츠랑 헤어밴드를 세트예요.(웃음) TV커버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취식이 안 된다고 공지했는데, 매번 밥을 싸 오세요.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활동하시거든요. 저도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정리도 잘 해주셔서 원하는 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봉틀 모임

여러모로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공간지기 분들과도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혼자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면,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됐죠. 다들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이라 공감되는 것도 많아요. '정이든다 작은도서관'의 공간지기님은 제가 원갈 시작할 때 항상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신경을 써줘서 굉장히 고맙고, 근처에 갈 일 있으면 얼굴 한 번 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공간에 오는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신가요?

재봉틀 모임에 계시는 분이 기억에 남아요. 나이가 가장 많으신데 가장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밥도 가장 많이 싸 오시고요. 뭐 하나 완성할 때마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사운드워킹 참여자 중에서는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소리 채집을 하고선 '우리가 내는 소리도 일상생활에선 차 소리처럼 소음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요.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꾸려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사운드워킹이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소리 탐험대' 같은 동아리도 만들고 싶어요. 꾸준하게 뭔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터뷰이 전은미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우리소극장

서동훈



10년 간  
사랑받아 온  
어린이 전용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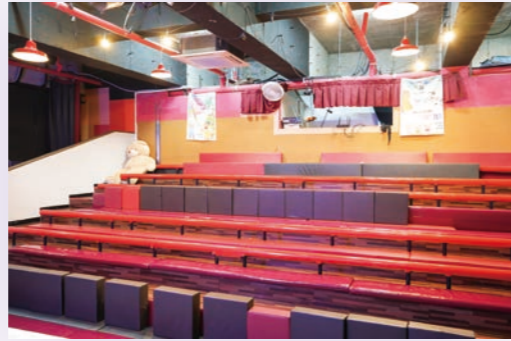
우리소극장은 인형극, 뮤지컬 등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열리는 소극장입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향수가 느껴집니다. 동화 같은 무대에서 인형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며 환상의 나라로 이끌어지는 경험. 우리소극장은 벌써 10년째 자리를 지키며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타 반주를 곁들이며 동화 읽어주듯 말을 거는 공간지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이가 듣고 보는 음악과 극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길, 그 무대 역할을 동네 극장이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서동훈 공간지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공간을 연지 딱 10년 됐네요. 여긴 아이들을 위한 소극장이예요. 극장을 처음 열 때부터 저희는 덴마크식의 연극을 추구했죠. 덴마크는 겨울이 굉장히 빨리 와요. 4시 반만 되면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니 할 게 없어.(웃음) 그래서 동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동네에 소극장이 하나씩 있고 아이들은 연극을 보며 자라죠. 아동극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1인극을 위한 인형극장도 있어요. 아이하고 둘이서 작은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극장이 선진화되고 발전하면서 몇천 명을 앉혀놓고 하는 일방적인 쇼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덴마크식의 연극이죠.



**소극장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굉장히 지역 밀착형이죠.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냥 까만 천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서 인형들이 나오는 인형극. 그렇게 하는 공연이에요. 그냥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이런 소극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아이들은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을 하고, 연극을 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없죠. 극장 운영은 갈수록 더 어렵고요. 제가 의정부에 극장을 세울 적에는 이미 전국에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철수하고, 이제는 여기만 남게 됐죠.



**전국의 동네 중에서, 의정부에 극장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울 중계동의 한 아울렛에서도 어린이 소극장을 운영했거든요. 당시에 의정부 아이들이 관객으로 많이 왔어요. 중계동에서 공연을 하면, 인기가 좋아서 제발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의정부 엄마들이 계속 의정부에도 극장을 하나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웃음) 그래서 의정부에도 짓게 됐죠. 극장은 층고가 높아야 하는데 당시엔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 막 민락지구가 생길 때였어요. 제가 극장을 만들고 싶다니까 이 건물을 짓던 사람들이 극장이 들어올 수 있게 층고를 높여서 지어줬죠. 10년 전에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영업해 왔어요.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웠는데, 등록 공연장이라 그나마 지원금을 받기도 하며 어떻게든 유지를 해왔죠.

얼마 전 '퀸즈뮤직'에서 우쿨렐레 동아리 분들이 대관을 했었는데, 이 공간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애들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왔다고요. 덕분에 여기에서 애들 문화생활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극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했어요. 그룹사운드를 했죠. 그러다 누가 연극, 뮤지컬 음악을 해달라고 해서 뮤지컬팀을 알게 됐어요. 대학로에서 연극 음악을 하다 보니, 공연장이 있으면 음악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극장을 열게 됐어요.



**극장 중에서도 '어린이 소극장', 그리고 아동극을 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룹사운드 할 적에 누가 제 노래를 듣더니 동요를 어디서 배웠냐고, 동요 작곡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음악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동극에 들어가는 음악도 만들고요. 당시 어린이 극장이 유행하는 추세가 있었고 한번 해볼까, 하고 극장을 열었죠. 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소극장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극장은 참 지탱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당시에 같이 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극단도 극장도 어려워지니 문화 관련 기관이나 직장으로 취직하고, 뭐 그렇게 다 갔죠.

그럼에도 선생님께서는 계속  
극장을 유지하려 하시고,  
필드에 계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극장 문을 닫을까 생각한 적 많죠.  
그러다가도 어린이에게 좋은 공간이니까 쉽게  
닫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어서 할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예 닫는  
것보다 젊은 연극단에게 이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이에요. 노래랑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왔어요. 학교 선생님도 오고, 클래식  
기타 학원 팀도 신청하고요. 퇴직하신 분, 밀랍  
인형 만드시는 분, 미술 학원 선생님도 있고  
다양해요. 뭔가를 해소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크게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조명도  
쏘고 음향 장비를 갖춰서 부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테고요.



어린이 소극장, 그리고 동네 소극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는 것과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면 누구든 다 가슴이  
쿵쾅거려요. 무대에 서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보여줘야 하는 처지가 되거든요.  
반면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볼 땐, 무심코  
평가하듯이 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무대, 그 역할을  
동네 극장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꼭 연기가 아니더라도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무대를 내어줄 수도 있죠.  
저희 공간에서도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들이  
발표회를 하기도 하고, 영어 학원에서 연설  
대회를 열기도 했어요. 무대가 필요한 때는  
많고, 그럴 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연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니까요. 아이들은 머릿속이 도화지 같아서  
뭐든지 다 흡수해요. 연극 대사들이 평상시에  
쓰는 단어들이 아닌데도 다 인지하거든요.  
실제로 극단 대표님들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웃음) 왜 잘 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대사를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요. 어른들이  
쓰는 말을 알고, 말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공간지기 분들과도 사이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오래 계셨지만 새롭게 알게 된 공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자식도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 내  
재주로 다른 이의 어떤 곳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각자의 재주가 다 있으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야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소극장은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삶을 나누고, 억눌려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사람이란  
자기 할 말을 잘 못하고 살면 외롭고, 본인의  
관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생각만  
맞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알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내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같이 하면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없고, 각자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공간도 그런 각자의  
재주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인터뷰이 서동훈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시소그림책방



유한순

함께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아늑한 그림책방



고산동 가는 길, 멀리에서부터 눈에 띄는 분홍색 건물이 마치 주변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그 건물에 위치한 시소그림책방은 그림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이 열리는 공간인데요. 아지트 같은 아늑한 공간에는 공간지기가 한 권 한 권 직접 모아 온 그림책들과,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은 캐릭터 인형들로 가득 찬 그림책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책을 향한 공간지기의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현실에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림책을 보고 느끼며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 경험을 보다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넉넉한 마음의 유한순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공간에 항상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에서 그림책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돌봄센터에서 그림책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림책에는 여러 주제가 있다 보니까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오전에는 이 공간에 와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공간을 돌보고요. 점심 지나면 일을 하러 가죠. 공간에서 그림책 프로그램을 꾸준히 많이 했어요. 작가님들도 많이 초빙하고, 워크숍과도 연계하고요. 수익은 없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 공간은, 개인적으로 그림책이 있는 공간을 열고 싶다고 느껴서 열게 된 걸까요?

네, 제가 그림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천 권 이상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것도, 그림책으로 일을 하는 것도 꽤 오래되었으니까요. 한 17년 정도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림책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원래는 집 옥상을 임대해서 아지트 같은 그림책방을 차렸어요. 그러다 점차 그림책도, 그림책 프로그램 커리큘럼도 많아지니 사업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며 공간을 옮길 곳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장소를 발견했거든요. '기회가 왔구나.' 싶어서 여기로 이사를 나온 거예요.

이 공간을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는요, 2008년부터 저만의 공간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웃음) 그때부터 그림책과 북아트 교실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늘 마음의 꿈처럼 틈틈이 공간 보러 다니고 부동산에 물어서 구경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되게 여러 번 겪고 나서 이곳을 만났어요. 거의 마음을 포기할 때였는데 어떤 이끌림으로 여길 오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사실 커피를 마시러 이곳에 왔어요. 검색하다 보니 '그림 이야기 카페'가 나왔는데 이곳이었거든요. 도착했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작품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분위기가 딱 마음에 들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때 여기 건물주이신 화가 선생님과 우연히 만나서 2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림책방을 하고 싶다는 말도 전하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니 곧 전화가 와서, 그림책방을 한다고 하니 본인의 그림 작업과도 어울릴 것 같다고 선뜻 임대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죠.



시소그림책방 인규

한순님은 외부에서 강사로 일하고, 공간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공간을 꾸러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었어요.

그림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게 뿌듯해요.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강사비, 재료비를 참가비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서 열정이 사그라들만할 때 이제 <사이공간>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받게 되어서 열정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이어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조용한 동네의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에요. 편안하고 정겹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신나고 가능하면 오래 하고 싶어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 주시는데, 등만 돌리면 그림책이 있고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몰랐던 그림책을 알고 가는 재미도 느끼고요. 그래서 여력만 된다면 이 공간을 정말 오래 지키고 싶어요.

책으로 연결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고요.

처음에는 멀리서 많이들 오셨어요. 경남 진주나 성남, 파주, 일산, 용인, 광주,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자주 오기엔 어렵죠. 멀리서 오시는 것도 좋고, 동네 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드림>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요.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프로그램 이후로 후속 모임도 하시고요. 편히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는 그림책방이다 보니,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책을 읽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안부,cafe 사장님이 참여자 모집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안부,cafe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계속해서 그림책 모임을 해오셨더라고요. 그 모임 분들이 <어울림> 프로그램에 많이들 참여해주셨어요. 원래도 이 공간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관심 갖고 참여하던 분들도 와주시고요.

시소그림책방의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공간끼리 서로서로 관심 갖고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참여자분들이 안부,cafe에 가셔서 '시소그림책방 프로그램 너무 좋다, 감동이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저희 프로그램은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날의 책과 관련된 예술 워크숍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 플러스 원을 누리는 느낌인가 봐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예술 워크숍 강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예술 강사님들 반응도 정말 좋아요. 그림책과 예술을 연결하는 시도가 참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차마다 그림책을 정한 후, 예술 강사님에게 책을 배달해 드려요. 그럼 강사님이 그림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시고요. 그렇게 연결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좋아요.

'시소그림책방'은 다른 공간지기 분들과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공간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특히, 이 주변에 있는 공간끼리 자주 교류하는데요. 저마다 다른 색깔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더 협력관계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림책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시인이나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계속 꿔어요. 기회가 좋았고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투고해서 그림책도 출간할 수 있었어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작가가 된 거거든요. 출판사에서 제 마음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림책과 책을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직접 책을 내기도 하고,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오셨네요.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이어오신 거네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림책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이 공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강의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월세는 항상 같은 날 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죠. 제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예요. 우유 배달도 해보고 레스토랑에서 피자도 만들어보고, 청소 도우미도 해보고요. 그렇게 강사 활동도 공간도 지켜온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공간이죠.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저는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삶을 욕심껏만 사는 게 아니라 소중하고 감사하게, 진솔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말도 못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위로되는 것 같아. 힘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공간에서 하고 싶어요.

인터뷰이 유한순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 정이든다 작은도서관

곽지황



## 빼벌마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



고산동 빼벌마을에는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빼벌마을은 다양한 입장이 교차하고 있는 동네이지만 어떤 이유로 들어오게 됐는지와는 상관없이, 있는 동안이라도 정을 붙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이든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공간지기는, 공간을 열며 다시 한번 마을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가늠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잘 살피는 공간지기 덕분에,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이든다 작은도서관에서 곽지황 공간지기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간지기님은 언제부터 이 동네에 계셨나요?**

저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여기서 30년 살고, 2010년에 결혼하면서 외부로 나갔다가 22년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을 때 ‘와, 여기는 진짜 안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한 건 미군 병력이 철수했다는 거예요. 가게 하시던 분들도 나가고 마을이 쇠락해졌다는 것. 사실 큰 변화죠.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만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잠깐 떠났다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으니 마을의 변화가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돌아오셨을 때 공간을 열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을에 관심이 많았죠. 제가 나가 있던 10년 사이에 미군 부대가 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쪽방이 많이 비게 됐는데, 세가 싸니까 고산지구 건설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었고요. 고산지구가 (어느 정도) 조성된 이후 다시 공실이 많아요. 그 이후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마을에 많이 들어오게 되셨어요. 살펴보니 마을의 절반 정도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공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마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흔한 편의점이나 카페도 없고요.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도서관을 만들고자 계획하신 건 아니었나 봐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일단 마을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했어요. 사실 저한테는 마을 사람들이 다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고, 다 부모님 같은 분들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 될 만한 걸 하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진행했던 건 놀이터를 보수하고 수리한 일이에요.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이 꽤 있는데 놀이터 유지, 보수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고치고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은 노인정 어르신들 돕는 일을 했어요. 그다음 일로, 이 공간을 열게 됐죠.



**먼저 어떤 공간을 열어야겠다고 정해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마을을 둘러보면서 이 동네에 필요한 공간이 어떤 것일지 살펴보신 거군요.**

살펴보니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일단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여기엔 학원 차가 안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명 태우려고 여기까지 오는 걸 불편해하는 거죠. 근처에 도서관도 없고, 가려면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야 하니까요. 아이들 교육 및 놀이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길 만들게 된 거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니,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커피 원두도 다양하고 장비도 갖추어져 있네요. 카페는 어떻게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웃음) 저는 늘 커피를 마시니까, 마을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쪽 미군 부대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커피를 예전부터 많이 드셨어요. 어르신들도 커피를 좋아하시고요. 기왕이면 좀 좋은 커피를 드려야겠다고 싶었죠. ‘월간 커피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매달 로스터리를 바꿔가며 원두를 들여와요. 원하는 원두를 고르시면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리는데,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마을에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어울림> 프로그램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손도장을 찍으면서 다 같이 작품도 만들어보고, 드림보드 만들기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은 각자 몰입할 수 있는 페인팅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끝까지 완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되게 좋아해요. 작품이 완성되니까 스스로 뿌듯해하고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몰입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혼자 하려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서로 친해졌어요.

**지항님이 문화, 예술 쪽으로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해요. 공간에 있는 모니터에 '정이든다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매번 다른 그림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보게 되니까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요. 다른 데서 그림을 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고 집에 가서 작가를 검색해 봤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어떻게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상업적인 목적의 공간이 아니니 사업자를 내기도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딱 작은도서관의 조건인 책 1,000권, 공간 10평에 부합하더라고요. 이걸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등록했어요. 도서관의 역할도 하면서 카페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도 가져다놓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악기도 넣어두고요.

**주변 사이공간들과 굉장히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지기님 칭찬을 하셨어요. 지기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힘을 얻으신다고요.**

<사이공간> 사업으로 다른 공간지기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분들이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근처 갈 때 간식 한 번씩 가져다드리고 그런 거죠.(웃음)

**'정이든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신 이유도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땐 미군이 있는 상태였고, 클럽이랑 술집이 많으니까 취한 사람들도 있고, 맨날 싸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 '이놈의 동네, 정이 안 들어.' 이런 거였어요. 이 마을에 살기 지겨운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순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빨리 떠나고 싶고, 정붙이고 살지 않는 마을인 거죠. 정붙이고 살 일도 없었고요. 다시 마을에 돌아와서 공간 이름을 지을 때, 이 마을에 어떤 이유로 들어오셨든 있는 동안이라도 정을 붙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이든다'라고 한 거예요.

'정이든다'라는 이름은 저에게 의미가 커요. 처음 단골이 되어 주신 할아버지하고의 인연이 되게 좋았어요. 이 마을에서 이불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본인인데, 저는 이 마을에서 자랐으니 알죠. 개관하는 날 처음 오셔서 오랜만에 뵙고, 그 이후부터 거의 매일 오셨거든요. 저는 매일 대추차를 내려드리고요. 그렇게 한 3개월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며 쪽지 하나가 나왔는데 제 이름이 쓰여 있었대요. 처음 왔을 때 이름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려고 적어두신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추억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고, 덕분에 이렇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채우려고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마을의 결핍을 본 거죠. 이 공간을 시작으로 동네에 에너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2년 차인데, 한 3년까지는 흘러가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마을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갈지, 영향력이 생길지 그런 흐름도 보고요. 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죠. 긴 호흡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어쨌든 이 공간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인터뷰이** 광지황  
**인터뷰어** 이규빈, 박예은  
**글과 편집** 이규빈  
**사진** 박예은



2025 사이공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닫는 글

이규빈

2025 문화공유공간 지원사업 <사이공간>  
워킹파트너 (주)로컬피스 대표

사이공간은 의정부의 문화공유공간을 지원하고, 더 많은 시민이 문화공유 공간에서 일상 속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의정부와 로컬피스는 3년째 함께 사이공간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공간 워킹파트너로 참여하며, 의정부문화재단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요. 공공기관-민간 업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효적인 지원사업을 만들어 가자는 뜻으로 푹푹 뭉쳐 의견을 나누고 손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공유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꺼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기록하는 입장으로도,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으로도 선뜻 정의 내릴 수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이 ‘문화공유공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헛갈리고 알 수 없을 때마다, ‘아, 이런 것이 문화공유공간이지.’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이공간 공간지기와 나누는 주인장인터뷰입니다.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원고를 다듬다 보면 그 행간에서 매번 다른,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이공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공유공간의 특성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유독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문화공유공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변적인 공간. 사이공간은 특히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인 공간지기에 주목하는 사업이다 보니, ‘집들이’, 중간공유회, 주인장 인터뷰 등 공간지기가 직접 참여하여 발화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간지기의 욕구, 의도, 목표는 어떤 것인지, 예전에는 어땠고 나중엔 무엇을 해 보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때때마다 바뀌는 공간지기의 생각에 공간도 동기화됩니다. 공간은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방문자, 분위기,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지기의 유연함, 상상력이 이 움직임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절대적인 시간. 공간에 사람이 계속해서 팔려 들어올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자리를 지키는 절대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이공간의 프로그램 지원 ‘어울림’을 통해 사람들이 공간에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하나 하나 무겁게 찍혀 공간이 좀 더 오래 공간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눌러주는 것만 같습니다.

세 번째, 호스트-게스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올해도 정말 많은 사람이 사이공간의 대관 지원 ‘공간드림’으로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공간을 대관해서 다양한 모임, 공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공간의 효능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 시간 동안 공간을 빌려 쓰는 ‘손님’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장’의 입장에서 공간을 아끼게 되고 공간의 무궁무진함을 상상하게 되지요. 이런 경험 이, 사람들이 공간에 다시 오기 쉽게끔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공간지기와 방문자 간의 경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문화공유공간이란 특정한 조건을 달성한 공간에 부여되는 칭호나 개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간이 지켜낸 시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에 의미를 두어 보는 일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거진을 읽는 분들이 그 과정에 선뜻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사이:공간 매거진 VOL.3

# 사이:공간

[[magazine]]



2025 사이;공간 매거진 VOL.3

# 사이;공간

[[magazine]]

**발행처** (재)의정부문화재단

**발행인** (재)의정부문화재단 대표 박희성

**발행일** 2025년 11월 22일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사업명** 2025 문화공유공간 지원사업 <사이공간>



## (재)의정부문화재단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의정부예술의전당

11696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4층 의정부문화역 이음

031-850-5174 | ccity\_ujb@naver.com



문화도시 의정부 링크트리 @ccity\_ujb

문화도시 의정부 인스타그램 @ccity\_ujb

문화도시 의정부 페이스북 @ccityujb

문화도시 의정부 www.ucf-uac.or.kr

의정부문화재단 www.uac.or.kr

**인터뷰이** 염현희 신의철 조성희 하선진 유수연 최혜영 김준희 김혜영

이영일 임동아 손윤이 이슬비 김성길 김지은 김지현 박희성

조은지 임주영 강현욱 정영숙 한미진 진금숙 권문희 최지은

김한빛 전은미 서동훈 유한순 광지황

**제작** (주)로컬피스 | archiving8154@gmail.com | @archiving81.54

**기획** 박예은 이규빈

**편집/글** 이규빈

**디자인/사진** 박예은 @mulle.park

© 의정부문화재단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재)의정부문화재단에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SN 3092-0876

문화도시 의정부